# 戰後 中東市場 與件變化와 이라크市場 進出 方案

2003. 6

통 상 전 략 팀

# 目　次

Ⅰ. 이라크 戰後 中東經濟 與件변화 .....,..... 1

Ⅱ. 이라크 戰後 處理 動向 및 展望 ..... 6

Ⅲ. 美國의 이라크 戰後復舊事業 推進 戰略 및 現況 .. 11

Ⅳ. 韓國業體의 參與 擴大 方案 ..... 24

Ⅴ. KOTRA의 支援 對策 ..... 42

□ 添附 資料

1. 美 國際開發處(USAID)의 旣 發注施設 및 規模 / 46
2. 이라크 戰後復舊事業 參與(豫想) 美國業體 情報 / 48
3. 對中東 플랜트 受注 現況 및 發電市場 規模 / 57
4. 이라크 主要 産業現況 / 59
5. 이라크 비즈니스 障碍要因(03.5.29현재) / 68
6. 이라크 國家信用等級 /71
7. 이라크 進出 체크포인트 /77
8. 美 벡텔사 이라크再建事業 推進方向 /82

# I. 이라크 戰後 중동경제여건 변화

## 1. 4극 체제에서 3극 체제로

□ **전쟁전** :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 이란 4극 체제

○ 대미정책 : 반미(**이라크**) **對** 친미(**이집트**)간 정치적 대립

○ 석유무기화정책 : 반대(**사우디**) **對** 찬성(**이란**) 간 경쟁관계

□ **전쟁후** : 이라크, 사우디, 이란 3극 체제

○ 친미 **新이라크를 중심으로** 미국식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가 중동에 확산되면서 정통 이슬람원리주의의 **이란과 대립관계 형성**

○ 세계 제2의 원유 매장국 **이라크**의 본격적인 증산과 석유산업의 미·영 기업지배로 OPEC내 **사우디** 영향력 감소

**이라크 戰後 중동의 주도권 변화**

| □ 이라크전쟁 전 | □ 이라크전쟁 후 |
|---|---|
| 【4極 지배체제】 | 【3極 지배체제】 |
| - 정치: 이라크, 이란 | - 정치 : 이라크, 이란 |
| - 경제(원유): 사우디, 이란 | - 경제(원유): 사우디, 이란, 이라크 |

## 2. OPEC의 가격조절 기능 약화

### □ 미국의 OPEC 기능 약화 정책 추진

○ 사우디주도의 OPEC역할론을 폐기하고 OPEC의 가격조절기능 약화를 통한 생산-수요균형시장으로 재편 도모

| □ 생산자 위주 시장 | □생산자-소비자 균형시장 |
|---|---|
| - 사우디 중심의 OPEC 주도권 견고 | - 친미 이라크, 사우디 독주견제 |
| - OPEC의 유가 가이드라인 설정 | - OPEC의 국제석유시장 지배력 약화 |
| ☞ 고유가 지속 | ☞ 수급원리에 의한 가격결정 |

### □ OPEC 기능 弱化時 중동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동 산유국의 석유수출 收入 감소

- OPEC支持 유가 대폭 하락 가능(現 배럴당 22~28불 → 14~18불)
- 배럴당 1불 하락시 중동 OPEC 회원국 年 석유收入 약 76억불 감소

○ 석유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국가들은 경기침체 우려

-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리비아 등 석유의존도 40%이상
- 이라크 석유증산으로 '저유가, 국가별 쿼터감소'로 200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OPEC생산쿼터(03.1월, 백만b/d): 사우디 7.48, 이란 3.38, 베네수엘라 2.65, UAE 2.01, 쿠웨이트 1.85 등

※ 이라크의 OPEC생산쿼터 3백만b/d나 전쟁전 240만b/d 생산, 전후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향후 5년내외 최대 600만 b/d 생산 목표

## 3. 중동지역의 시장개방 점진적 확대

○ 장기적으로 중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 전망
- 중동내 미국식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확산

○ 年 2%대 높은 인구증가률과 성장유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민영화와 탈석유 산업화 진전

○ 역내 자유무역지대 확산, 미국-EU간 시장쟁탈전 본격화
- 걸프연안국을 시발로 한 관세동맹 발효(2005년)
- EU : 일부 지중해연안국 FTA 체결, 걸프국가들과도 추진 중
- 미국 : 미-중동 FTA 2013년 타결목표
※ 미국은 중동국가중 이스라엘, 요르단과 FTA 기 체결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가 중동국가에 미치는 영향

| 국별 | 영향 | 요인 |
|---|---|---|
| 쿠웨이트 | 매우 유리 | 이라크 재건사업 주요 창구, 대 이라크 중계무역 기능 회복, 안보 불안 요인제거 |
| UAE | 다소 유리 | 전후복구 물류거점 및 각종 프로젝트 배후기지로 지정, 주변 지역 긴장해소로 이란 및 중앙아시아 물류기지 기능 정상화 예상 |
| 이집트 | 다소 유리 | 지역정세 안정으로 관광 및 서비스수지의 회복, 외환 유입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증가 등 호재로 작용. 단, 서방의 개혁 압력, 반미열풍 고조로 사회불안 요인 상존 |
| 이스라엘 | 다소 유리 | 미사일 공격 위험제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적극 개입에 따른 평화 무드 조성 기미 |
| 요르단 | 다소 불리 | 대 이라크 특혜 석유수입 중단 및 생필품, 의약품 특혜 수출 상실 |
| 시리아 | 매우 불리 | 대 이라크 석유 특혜 수입 중단 및 국경 무역 급감 전망 |

## 4. 脫 석유화 및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 강화

○ 중동 각국은 유가인하, 실업율 증가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 제조업 육성, IT산업 육성, 물류,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등 자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화 정책을 적극추진

**향후 중동국가별 脫석유화 추진 방향**

| 해당국가 | 특화 분야 | 추 진 방 향 |
|---|---|---|
| 이집트, UAE, 레바논, 모로코, 오만, 카타르 | 관광, 엔터테인먼트 | - 아랍부호 및 유럽 관광객 대상<br>- 지리적 이점과 역사유산을 최적화한 관광상품 개발 |
| 이란, 이집트, 알제, 사우디, 리비아 | 제조업 | - 이란: 자동차<br>- 사우디: 플라스틱, 석유화학<br>- 이집트: 섬유산업<br>- 리비아: 외국인 및 민간투자 적극 유치 |
| UAE,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 IT산업 | - UAE: 인터넷시티 확장, 금년중 3G 휴대폰 서비스 개시<br>- 바레인: 12월중 3G 서비스 개시<br>- 쿠웨이트: '06년까지 년평균 10.2% 성장 |
| UAE., 쿠웨이트, 이집트, 오 만 | 물류 및 중계무역 | - UAE: 중동·아 최대 중계무역항 위상 고수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확대<br>- 쿠웨이트: 대이라크 전진기지 위상 회복<br>- 이집트: 수에즈 운하 기능강화<br>- 오 만: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UAE와 경쟁 |

## 5. 戰後 中東市場與件 變化에 따른 進出戰略

**일반상품**

| | |
|---|---|
| ○ 미국상품 불매 분위기 확산<br>○ 세계 최고의 청소년 인구층<br>○ 전후 소비 마인드 회복<br>○ SARS여파로 동남아산 위축 | ○ 미국상품 불매운동 틈새품목 공략<br>○ 청소년층 타킷 상품 적극 개척<br>○ 전후 신규유망 틈새품목 발굴<br>○ 생활가전, 정보통신기기 집중 공략 |

**기계. 플랜트**

| | |
|---|---|
| ○ 전후복구 수요 기대<br>○ 중동산유국의 탈석유화 SOC 개발 프로젝트 추진<br>○ 입찰시 자국기업 우대조항 등 현지인 우대정책 시행 | ○중동지역 진출 미・영계 Contractor와 컨소시움<br>○ 전력, 담수화 등 SOC 진출 강화<br>○ Sector별 유력 에이젼트사 발굴 및 벤더 등록지원 |

### □ 진출 증대 방안(기계・플랜트)

○ 중동지역진출 미・영계 Contractor와 컨소시움 강화
○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련있는 SOC 프로젝트 진출 강화
- 전력, 담수화, 통신프로젝트 등 인구증가시 확대필수 프로젝트
○ 시공 플랜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발주자와 유대관계 강화
○ 국내외 경쟁력있는 협력사 발굴
○ Sector별 현지 유력 에이젼트 발굴 및 Vendor등록
○ 현지합작 진출 : 주재국의 내국법인 우대정책을 활용

**※ 자국기업 우대사례**

- 입찰자격 심사시 자국기업에 대해 15% 가격 프리미엄 제공
- 주재국 국민이 최소한 25%이상 자본참여 경우에만 조세 및 관세 등 기타 혜택부여
- 외국투자자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5~45%소득세 부과
- 공사계약 및 프로젝트규모의 30% 이상을 자국산 기자재를 사용토록 현지 조달비율 강제화

# Ⅱ. 이라크 戰後 處理 動向 및 展望

## 1. 이라크戰 進行 經過 및 向後 推移

### □ 현재까지 추이

○ 3. 20일 11:35분 : 개전
○ 4. 9일 : 바그다드 함락
○ 4. 15일 : 부시 대통령 승리선언(한국시간 4. 16일)
○ 5. 1일 : 부시 대통령 종전 선언
○ 5. 6일 : 이라크 최고 행정관으로 폴 브레머 임명
○ 5. 22일 : UN의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안보리 결의안 1483호)

※ 국제사회의 이라크 전후처리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기존의 대이라크 제재중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제재를 '03.5.22일자로 전면 해제

### □ 향후 정치일정 기본구상 4단계

○ 1단계(군정, 5월 개시) : 미국방부 재건인도지원처(ORHA)
○ 2단계(이라크 임시정부 구성) : 군정후 3개월 이내
○ 3단계(제헌국회 구성) : 임시정부 수립 6개월 이내 신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국회 설치
○ 4단계(민간정부 수립) : 군정후 2년이내 주권정부 출범

※ 재건인도처의 경험 미숙, 30년 장기집권의 바트당 및 조직의 일거 붕괴에 따른 대체 조직 및 세력 부재, 정파 및 종파간 분열심화로 정치 일정지연 전망

※ 미군의 이라크 주둔기간에 대한 입장 모호, 친미정권 수립과 체제안정, 석유통제가 확실한 시점까지 미군주둔 예상

## □ 군정의 당면 과제

○ 기초생활여건(치안, 전력, 통신, 용수, 석유) 회복
○ 기반시설(유전, 관공서, 도로, 항만, 병원, 학교, 공항) 복구
○ 정치안정(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간 이해 조정)
○ 경제문제(고 실업, 고 물가 해소)

※ 이라크내 투자유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관세유예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준비

### 부문별 이라크 최근 동향

| 부 문 | 동 향 |
|---|---|
| 민 심 | ○ 후세인정권 붕괴에 대해 대체로 만족<br>○ 치안부재, 단전 등 불안 장기화에 불만 고조<br>○ 신정부 체제 안정후 미군 철수 희망 |
| 정 치 | ○ 정당 난립(5월초 80여개)<br>○ 시아파 강세로 불안한 흐름이나 혼돈시 미군 장기주둔 야기로 정파. 종파간 타협가능성 높음 |
| 치 안 | ○ 성인 무기소지 일반화, 국지적 약탈 지속<br>○ 야간활동 위험(주간, 시내 활동 무난) |
| 실 업 | ○ 고용부재로 시민불안 가중 |
| 환 율 | ○ 전쟁이전보다 강세로 수입품가격 하락 (전쟁후 $당 한때 3,000디나르→ 1,300디나르)<br>○ 달러지출 증가로 향후 지속적 강세 예상 |
| 통 신 | ○ 모든 국.내외 통신 단절, 위성시스템 사용<br>○ 정상화에 최소 4-5개월 소요 예상 |
| 에너지 | ○ 전기: 지역별 2-12시간 단전<br>○ 석유: 정유시설 복구지연으로 유류파동 |
| 정 부 | ○ 대부분 관공서 폭격, 약탈로 정상화 지연<br>○ 군정 초기 대응 실패로 향후 적극 활동 예상<br>○ 관공서 복구, 공무원복귀 속도가 정상화 관건 |
| 인프라 | ○ 도로, 항만, 공항, 병원 복구 및 정상화 시급 |
| 외국 (정부·기업) | ○ 한국: 6월중 정상화 예상(대사 기 내정)<br>○ 여타국: 영국, 인도등 바그다드공관 부분 정상화<br>○ 기업: 통신여건상 진출 미미, 조만간 러시 예상 |

## □ 미-이라크전이 세계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 ㅇ 긍정적 요인

- 경제적 불확실성 요소 해소
- 세계 소비 및 투자심리 부분 회복
- 유가 및 금융시장 안정 회복세

### ㅇ 부정적 요인

- UN의 국제분쟁 조정기능 무력화
- 미-불, 독, 러시아간 국제정치 주도권 쟁탈전, 무역분쟁 격화
- 이슬람권내 반미감정 확산 및 보복테러 위험 지속

## □ 미-이라크전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 ㅇ 전세계 석유자원 통제력 확대

- OPEC영향력 억제 : 석유통제력 무력화로 석유무기화 위험 완화

  · 유가불안 억제, 안정적 공급원 확대로 미국경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패권경쟁국 견제 : 장기적인 미국 패권 유지

  · 석유자원통제능력은 경쟁국에 대한 강력한 제어수단

○ 미국의 군사적 패권체제 강화

- 미국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과시 및 미군 재배치 추진

  · 세계 최대 에너지 부존 지역인 중동과 카스피해연안에 대한 장악력 확대 및 테러집단의 도발의지 억제

  ·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 억제(중국, 러시아, 인도 등 견제)

○ 2004년 대선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차기 대선까지는 경제문제에 주력할 것이며, 당분간 대규모 파병까지 가는 전면적 군사개입 가능성은 낮음

  · 1990년 걸프전에서 승전하고도 '01년 대선에서 클린턴에 패한 아버지 부시를 반면교사

> ※ 클린턴 선거전략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 (Its the Economy, Stupid!)
> →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걸프전 승리라는 부시의 과거 업적보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클린턴의 비전을 선택

○ 기 타

- 석유, 건설 엔지니어링사 등 親공화당 기업들의 경제이익보호

- 이스라엘의 안보적 위협제거: 시리아, 이란 등에 압력지속

- 테러온상인 중동지역에 미국식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확산으로 친미적 질서개편(민주화 도미노 등)

## 2. 이라크 戰後復舊事業 向方

### □ 기본 방향

○ 정치적 재건(Reconstruction) : 이라크 내 민주적 新정부 수립

○ 경제적 복구(Recovery) :  사회간접자본 복구 및 경제 개선

○ 인도적 지원(Relief) : 이라크 국민들의 최저생활 수준 확보

### □ 추진 방향

○ 미국 주도하에 영국 및 기타 참전국의 협조 하에 추진

○ UN역할은 기본적으로 이라크 과도정부 승인 및  인도적 지원 등 보조적 지원자 역할 수행으로 한정 전망

○ 국제금융기관 및 협의체는 이라크 채무 재조정 및 금융지원
※ 파리클럽(국가간 채무), 런던클럽(민간 상업채무)

○ 기타 국 및 NGO의 인도적 지원, 개별기업 투자참여 등

# Ⅲ. 美國의 이라크 戰後復舊事業 推進 戰略 및 現況

## 1. 基本 戰略

### □ 참여국가 및 업체 선정

| | | |
|---|---|---|
| 미국 자본투입 복구 프로젝트 | ⇨ | 원청기업을 미국기업에 한정 |
| 미국 지원 복구 프로젝트 | ⇨ | 전쟁 기여도에 따라 입찰참여 허용(전쟁 반대국은 배제원칙) |

### □ 입찰 방법

| | | |
|---|---|---|
| 입찰방법 | ⇨ | 신속 추진, 비밀보호 등 이유로 비공개 지명경쟁 추진 |

※ 원청업체의 하도급, 물품조달은 미국외 기업도 개방

| | | |
|---|---|---|
| 하도급 | ⇨ | · 참전 및 지지국에 대한 보상조치<br>· 중동국가로부터 소싱확대 |

※ 중동지역내 반미감정 완화 등 대중동 전략 일환

### □ 발주업체 선정 우선 순위

- 미국인이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
- 중동 현지에 기존 거점(Facilities) 보유 기업
- 중동 현지의 경험이나 전문성(Expertise)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여타 기업들은 Sub-Contractor 자격으로 참여 가능

## 2. 戰後復舊事業 規模 및 財源 調達

미국의 예산사정과 기타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복구재원 확보가 어려워 이라크 자체예산(석유수출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임시정부에서 본격적인 복구사업이 진행될 전망

### 가. 주관 기관

**국방부 산하 재건인도지원처(ORHA)**

- ORHA :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tance

○ **군정기간동안 이라크 질서회복, 후세인 추종세력 척결 등 통치 및 기간시설 복구, 인도적 지원 등 이라크 전후재건 사업 총괄**

-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간 주도권 싸움 치열

  · 최근 이라크내 반미데모, 종파간 갈등 확산에 대한 경직된 대응 우려로 국무부 영향력이 다시 강화될 전망
  : 최고 행정관으로 전직 대사 폴 브레머 임명

- 구성 : 美 행정부 관료, 영국, 호주(8명), 한국(8명) 등 참전국 파견관, 이라크 전직관리와 망명객 등

  ※ 한국도 외교통상부 심의관급을 단장으로 8명 파견 예정

- 치안유지·상수도·전력 등 기본 공공서비스의 조기 회복에 최우선

  · 향후, 이라크 主收入源인 석유부문 개발 및 민영화 중점

## 국무부산하 국제개발처(USAID)

※ 국제개발처 (USAID) : 미국정부가 대외원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한 기관으로, 매년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한 원조용 목적으로 25억불 이상의 정부조달 입찰 실시 및 구매

○ 미국자금 투입 프로젝트 입찰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 수행

- 戰後 복구사업 Master Plan 수립

- SOC, 교통 및 운송, 통신 등 8개 핵심분야 입찰 주관(17억불 규모)
  · 현재, SOC 복구사업, 움 카스르 항만복구, 인력지원, 지역정부 지원사업, 교육시설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주사업자 선정

- 최근 가장 규모가 큰 SOC 복구사업(최대 6.8억불) 주 계약자로 美 벡텔사가 선정됨으로써 **현재까지 기 발주된 10억불 상당의 프로젝트가 모두 미국 기업에 의해 수주됨**

## 미 공병대 (The Army Corps of Engineers)

○ 미군 주둔시설, 유정진화, 도로·교량보수 입찰 주관

○ 민간 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 활용

- 전쟁 및 분쟁 지역에 파견된 군대를 위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정규군 조직 축소에 따라,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연간 $ 350억 규모 시장으로 매년 10~15%씩 성장**

- 주요 기업 : KBR(Halliburton 자회사), 딘코프, 노스롭, 그럼맨, PRI 등

**기 타**

○ UN내 인도적 지원기관, 세계은행 등 기타 국제금융기구
○ 개별투자기업
○ 이라크 민간정부(중장기)
○ 이라크내 미국 정부관련 영향력 행사 세력
- 임시정부 인사, 정부고문, 석유재건 그룹 등 기타 비상임기구

## 나. 복구 사업 규모

### □ 인프라 복구비용만 최소 100억불에서 최대 1,050억불 추산

○ 각 기관마다 산출 기준에 따라 상이한 전망

- 미 정부 매년 200억불씩 10년간 소요 예측
- Council of Foreign Relation : 1,000억불
-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 5,000억불
- Wall Street Journal 예측 재건 비용

(단위: $억)

| 구 분 | 최저(단기) | 최고(장기) |
|---|---|---|
| 전쟁 수행 | 200 | 800 |
| 전후 평화유지(5년간) | 250 | 1,050 |
| 인도적 지원 | 10 | 100 |
| 전후 통치 | 50 | 120 |
| **인프라 복구** | **100** | **1,050** |
| 우방국 원조 | 60 | 100 |
| **합 계** | 670 | 3,220 |

☞전후 복구비용 집행사례

·보스니아, 동티모르, 레바논 : 총 250억불 (World Bank추산)
·Marshal Plan : 4년간 133억불 (현재가치 환산시 4,500억불)

□ 복구기간 : 5-10년간 소요 전망

○ 원유 생산량을 현재 일일 220-250만 수준을 350만 배럴로 증산에 1년반 소요 예상
- 5-6백만 배럴로 증산은 최소 5년정도 소요 예상(석유공사 추정)

□ 재원 조달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2차례 전쟁수행으로 재정수지 압박을 받고 있어 가능한 한 이라크 자체 재원조달을 원칙**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 강구 중

○ **기 확보 분: 37억불 정도**

- 미국 지원액 : 24억불 내외
  · 부시 대통령 추경 요구액 : 복구비용 17억불, 인도지원 543백만불

  ※ 미국예산으로 집행분은 미국 대외원조법(US Foreign Assistance Law)에 의거 미국업체에 원청권 부여 : 외국업체는 하청참여 가능

- 각국의 인도적 지원 공여 약속액 : 13억불(Dowjones 보도)

  · 이중 713백만불 旣 기여 : 영국(3.3억불), 일본(1억불), 호주(63백만불), 캐나다, 중국, 일본, EU(1.1억불), 프랑스, 독일, 인도, 에이레, **한국(1천만불)**, 쿠웨이트, 대만, 러시아, 스페인, 대만 등

○ **이라크의 석유 수출대금 : 연간 220억불**

- 유가가 20불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물량을 OPEC 쿼터량(300만 배럴/1일)에 한정할 경우

○ UN의 「Oil for Food Program」 잔여 자금: 394억불

- UN을 통한 이라크의 총 석유수출대금(642억불)중 기 수입대금 (248억불) 지출을 제외한 금액
  ※ 현재 BNP-Paribas은행 "UN Iraq" 구좌에 예치되어 있는 순 잔고가 47억불 설과 100억불 설도 있음

○ UN 긴급 구호물품 지원 프로그램 : 9억불

- 세계보건기구(WHO), 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기금(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등을 통해 지원

○ 기타 : 이라크 해외자산 동결분(17억불), 후세인 개인도피자산 (45억 - 240억불 추정) 회수분

## 3. 주요 발주대상 분야

○ 발전소, 송・배전망, 상・하수도, 병원 및 도시 기반시설, 학교, 유정, 정부청사, 공항・항만・도로 등 인프라 시설 등

○ 기 발주 분야 : 10.2억불 상당(첨부 #1 세부내역 참조)

- 공항, 항만, 발전소, 상수도 시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 6.8억불
- 움 카스르 항만 복구공사 용역 : 480만불
- 초등 및 중등교육 복구 자문 : 63백만불
- 재건복구계획 기획 및 감리 용역 : 710만불
- 지방행정, 공공보건 위생 등 복구 자문 서비스 : 168백만불
- 유정진화 및 개발권 : 5천만불(1차)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및 의료 기기 공급권 : 44백만불
- 공항관리 : 250만불

## □ 발주 분야별 프로젝트 주요 내용

| 분야 | 프로젝트 내용 | 주요 참가(예상) 기업 |
|---|---|---|
| 교통·운송 | ㅇ2012년까지 4개 주요공항 확장건설<br>ㅇ6개월내 2,230km, 12개월내 4,500km 도로망 재구축 및 교량 100개 복구<br>ㅇ Umm Qasr항 준설 및 확장<br>ㅇ 966km 관개용수 재건 및 수리<br>ㅇ 철도시스템 재 가동 | Bechtel(기 수주) |
| 통신 | ㅇ전화 회선 추가 가설<br>ㅇ바그다드 시내 휴대전화 시스템 가설<br>ㅇ주요 통신시설 복구<br>→ 이라크 신 정부에 이양 전망 | Motorola (GSM) 및 Qualcomm, Lucent Technologies (CDMA) |
| 발전설비 | ㅇ1년내 10개 발전소 복구 | Bechtel(기 수주)<br>Katherine Potter of Calpine Corp, GE |
| 유정복구 | ㅇ1단계로 1일 350만 배럴로 생산능력 복구<br>ㅇ향후 5년간에 걸쳐 관할권 단계적 이양 및 생산능력 지속 확대 추진 | Halliburton Inc.사 등 미국 주요 석유메이저 |
| 복리후생 | ㅇ식량공급 | Cargill, ConAgra Foods, Arrcher-Daniels-Midland Co. |
| | ㅇ교육 시스템 개발<br>ㅇ각급 학교 6천 개 수리 | Creative Associates International Inc.<br>Pearson PLC 등 |
| | ㅇ21개 의료기관 정상가동<br>- 주요도시별 1차 진료(referral) 전문병원 1개소, 종합병원 복구<br>ㅇ주택 2만호 건설<br>ㅇ10개 상·하수도 시설 복구 | Abt Associates Inc.사<br><br>상하수도 Bechtel기수주 |

## 3. 主要國의 參與 推進 動向 및 戰略

### □ 英 國

○ 승전국 자격으로, 총 입찰물량의 최소 15% ~ 20% 수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 전개

- 주관 부서 : 통산부, British Trade International

- 관심 분야 : 농업, 의약, 유전, IT, 금융·보험, 전력, 상수도 등 사회 기반시설 (토목공사 포함)

| |
|---|
| ※영국정부는 '96년 발효된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 (The Iran and Libya Sanctions Act)'에 따라 미국정부가 이란과 리비아에 4천만불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전후 복구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Royal Dutch Shell 등 상당수 기업들이 현재 이란에 투자 중) |

○ 참여 현황

- 1건 하청공사 수주 확정, 다른 1건은 유리한 입장

· Crown Estate사 : 미국 International Resources Group과 이라크내 병참기지 운영 하청계약 체결, 쿠웨이트지사를 통해 공급

· Thames Water, Amec, Balfour Beauty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 준비

- 미국 Bechtel사가 하청기업선정을 위해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상당부분 하청수주 전망

○ 영국의 진출지원 전략

- British Trade International(국영수출진흥기관)의 바그다드 사무소 개설(5월초, 10명 정도 주재예정)
  · 영국기업들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진출예정 미국기업과의 관계 강화

☞ 코소보 전후복구 사례 적극 활용(시장선점을 위한 조기진출 필요)
· 종전 직후 코소보를 방문한 기업들이 건설부문 다수 수주

- 고위급 세일즈 외교 강화

  · 영국 통산장관 Patricia Hewitt와 미 USAID 처장 Andrew Natsios간의 친분관계 활용

- 민간컨설턴트 및 협회차원의 외교강화

  · 영국건설협회(BCCB)는 Halcrow, Mott, MacDonald 등 세계적인 자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회장이 워싱턴을 방문 로비

※ **참여유망 영국기업**(런던무역관, 영국 Trade Partners UK 접촉 입수)
- Crown Agents: Umm Qasr 항구 물류 공사 旣 수주
- Amec : 유전복구사업 참여를 위해 미국 건설그룹인 Fluor와 합작법인 설립 (Amec 49%, Fluor 51%)
- Thames Water(상수도건설)
- Balfour Beatty(건축, 인프라)
- National Grid/Transco(전력)

□ 獨　逸

○ 反戰 국가로 직접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내 자회사를 통한 참여,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방안 적극 강구

- 관심분야 : 원유, 식품제조, 제철, 상・하수도설비, 통신 등
- 가격경쟁력 결여로 범용분야 하청참여는 거의 어려울 전망

○ 주요기업 참여동향

| |
|---|
| - Thyssen Krupp(건자재 및 엘리베이터) : 미국자회사인 Thyssen Krupp Elevator는 미국내 최대 엘리베이터생산업체로 암만에서 아랍스타일 엘리베이터 생산중<br>- Siemens(에너지 및 의료기술): 미국 Westinghouse의 발전분야 인수. 카이로 및 리야드지사(1,000명 인력상주, 기술인력 포함)<br>- Daimler-Chrysler(자동차) : 복구물자 지원<br>- MAN(산업설비, 철도프로젝트):미국 자회사 Ferrostaal은 리비아에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시행<br>- Hochtief(건설): 미국 자회사인 Turner 통한 전략<br>- Sulzer Pumpen(기계) : 유전개발 및 상・하수도 펌프<br>- Klaus Steilmann(섬유 및 의류) : 난민 구호<br>- BASF(화학) : UN의 이라크생화학 무기사찰 프로그램 기 지원 |

□ 프랑스

○ 이라크 수입시장에서 1위 점유 위상을 활용, **석유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기업의 참여 적극 추진 중이나, 反戰주도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 추진은 근본적 한계

- 중장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아랍권내 이미지 확보에 주력

□ 日　本

○ 외무부내에 '이라크 복구·부흥지원 작업단'(위원장 다카하시 부흥지원 조정 담당대사)을 긴급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

- 미국기업과의 공동 혹은 미국기업의 하청형태 참여 모색
- 향후 미국측 동향 및 견제세력인 EU의 대응조치에 따라 판도가 변할 것으로 전망

○ 미수채권을 협상수단으로 활용 검토 중

- 일본기업들은 70년대부터 91년 걸프전이전까지 이라크 석유 화학플랜트, 공공시설, 농업기술분야에 집중 진출, 미수채권액 6,000억엔 이상

○ 종합상사,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를 중심으로 재 진출기회 포착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강화, 기 진출설비의 재보수 및 유지관리 서비스 부문 중점 수주전략

- 상 사 :

  · 미츠비시는 과거 석유·화학플랜트 중심으로 진출 가장 활발 (수주 누계 1조엔, 미수채권 579억엔으로 일본기업중 최대)
  · 스미토모(도요타자동차등 자동차수출 대행), 마루베니(병원 등 공공시설 건설), 이토츄(물자 및 기자재 공급)

- 플랜트 엔지니어링

  · 치효다화공건설, 도요엔지니어링, 日揮 등 엔지니어링 3사 과거 적극 진출
  · 특히 치요다화공건설은 미 KBR(Kellog Brown & Root)사의 모회사인 Haliburton사가 미츠비시상사와 공동 출자한 회사를 통해 간접출자

○ 이라크의 높은 리스크와 미수채권액을 감안, 일본정부 개발원조(ODA, OECF)자금을 활용한 진출 가능성 적극 모색

○ 일 기업들의 중동지역 플랜트 수주・응찰분야('03. 6월 현재)

- 원유처리, 화력발전, 가스・오일 분리, LNG, 가스처리 및 회수, 정유, 비료, 해수담수화 분야 등

□ 中 國

○ 주요 관심분야 및 진출 전략

- 저가의 경공업 제품과 소비재로 전후 이라크시장 공략 계획

・중국최대 상품박람회인 廣州交易會에 참가한 중동바이어들은 전후 복구시장에 필요한 가전, 일용 소비제품 등 중저가 중국산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이라크시장내 일용품의 70%가 중국산 추정)
※ 에어컨, 펌프 등 중국산 수출

- 플랜트 관련 미수금과 기 확보 유전개발권에 대한 기득권 유지여부가 관건으로 대두

・ 기존의 al-ahdad 유전 개발의 이권유지 및 haifaya 유전 개발 중점

- UN의 인도적 지원사업 조달시장 적극 참여
(UN Technology & Information Promotion System : www.un-tips.org)

・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입찰에 강점 보유

- 아직 이라크접근이 어려운 입장으로 터키 등을 통한 우회 진출 추진

  · 인근국 터키 자유무역지대의 중계무역기능 활용 시도

- 시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나 단기적으로 이라크 정국불안, 낮은 지불 능력으로 공사대금의 안정적 회수에 우려(일부 신중론)

  · 대이라크 무역 및 노무수출관련 미수채권은 10.9억불

○ 주요 기업의 참여 계획 및 현황

- 건 설

  · 中國水利水電工程總公司 : 이라크내 수력발전공사 도급
  · 中國冶金設備總公司 : 야금관련 이라크내 공사 도급
  · 四川東方電機廠 : 10억불 규모의 발전소 건설(후세인정권시)

- 석 유

  · 中國石油天然汽集團公司 : al-ahdad및 haifaya 유전개발, 송유관 건설수주(미 착공)
  ·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 석유무역

- UN조달시장

  · 中國華源集團(www.worldchinabest.com)등 다수

# Ⅳ. 韓國業體의 參與 擴大 方案

## 1. 전후 特需 전망

### □ 긍정 요인

○ 이라크의 세계경제 편입에 대한 미국 의지 확고

○ 세계 2위 원유매장량(확인 1,120억 배럴, 추정 2,400억 배럴), 천연가스(확인 3조 ㎥)등 기본적인 결제능력 보유

○ 전쟁전 우호국이자 아국의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반전국가의 우호적 지위 소멸

- 한국산 및 한국기업의 진출상의 제도적 장애가 제거됨

| |
|---|
| ※ 기본적으로 유럽산이 지배하는 시장, 전후 초기 선점전략으로 유럽산의 빈공간을 진출기회로 활용 |

○ UN의 이라크 경제제재 해제(03.5.22)

- 국제사회의 이라크 전후처리참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 · 원유 등 천원자원 관리 및 대외무역권한을 UN에서 이라크로 환원
  - · UN 및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촉진

※ UN 사무총장 직속으로 특별대표 설치,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지원업무 조정, 주요 인프라 재건 원활화, 정치 법률 사법개혁 촉진 등

| |
|---|
| ※ 이에 따라, 이라크산 원유 및 전후 재건·복구에 필요한 건설기자재 포함 모든 품목의 대이라크 수출이 UN이라크 사무소(Office of the Iraq Program)에 신고없이 가능 |

○ 이라크 임시정부 국영기업 민영화 조기단행 전망

- 국내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유치가 조속한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판단, 민영화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 계획

- 산업부산하 48개 국영기업(석유산업분야 제외, 총 종업원수 96천명)중 내년중 수십개의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착수 계획

※ 외국인소유지분률 상한은 아직 미결정
※ 법적 보호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장기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2년내에 들어서게 될 이라크 민간정부가 임시정부와 상이한 외국인투자정책을 채택할 가능성 우려

- 주로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사업가들은 이미 다수 이라크 기업들을 리스, 매수하거나 합작을 통해 진출하고자 오퍼를 하고 있는 상태임

○ 소득 향상시 이라크의 잠재 소비욕구(70-80년대 고소득으로 선진국산 위주 소비) 단기간내 가시화 전망

- 수년간 감소세의 실질경제성장률이 04년에는 20%로 플러스 성장하는 등 급격한 회복세로 반전 전망
  · UN제재해제 효과,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 원유생산 증가, 전후 재건사업, 외국인 투자유입 증가 등에 기인

○ 비교적 높은 국산인지도(특히 가전 등 내구 소비재)

- 저가 중국산 시장과 차별화, 구매력 회복에 시일 소요(고가) 여건과 건설, 제조 기계수요 등 전반적으로 국산이 현지 시장에 적합

이라크경제전망

| | 2001(추정) | 2002(추정) | 2003(전망) | 2004(전망) |
|---|---|---|---|---|
| 실질경제성장률(%) | -6.0 | -6.5 | -7.5 | 20.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60.0 | 70.0 | 75.0 | 35.0 |
| 원유생산량(천배럴/일) | 2,355(확정치) | 2,014(확정치) | 1,591 | 2,925 |
| 수출(FOB, 십억불) | 15.9 | 13.3 | 11.0 | 15.3 |
| 수입(FOB,십억불) | 11.0 | 8.0 | 7.0 | 8.9 |
| 경상수지(십억불) | 1.0 | 2.3 | 2.1 | 4.1 |
| 경상수지(GDP비중,%) | 3.7 | 8.9 | 8.6 | 13.9 |
| 외채(연말, 십억불) | 69.0 | 72.1 | 75.4 | 78.7 |

주) 이라크외채수준이 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추정 및 전망이 매우 어려움
자료원 : EIU 2003. 5

## □ 장애요인

### ㅇ 약 3,830억불에 이르는 이라크의 대외채무 및 걸프전 배상금 탕감여부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출 곤란

- 미국의 일방적인 대 이라크 기득 채권포기 요구에 대해 특히,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반전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

  · 파리클럽은 채무탕감 의지는 있으나 반전국의 복구사업 참여를 대가로 요구

- 현재 공공채무는 파리클럽에서, 민간채무는 런던클럽에서 논의 개시 중

☞ 독일, 프랑스, 러시아 3국의 대이라크 채권규모 : 740억불 (추정)
☞ 이라크의 걸프전 전쟁 배상금 : 1,999억불

○ 후세인 정권에서 기 체결된 계약, 특히 유전개발 관련 기득권 유지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출도 쉽지 않은 과제의 하나

- 미국은 일괄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강력 반발
  · 복구시장 참여정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

- 최근 들어 미 정부 일각에서 구 후세인 정권과의 체결 계약 기득권 부분적 인정 검토설 대두

○ 비즈니스 장애요인 산적 : 법적 장애요인은 조만간 완화 전망

- 테러위협, 낙후된 인프라, 열악한 기업지원 서비스

  · 테러공격 또는 현지 폭동, 기후변동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가능성
  · 도로, 항만, 통신, 발전 등 핵심 인프라시설 노후와 상당수 파괴된 상태
  · 제조산업 취약, 민간부분 미 발달(비중20%)로 원자재 조달 곤란

- 법적 장애요인: 구 법규는 비 아랍계 외국인 특히 차별

| |
|---|
| · 헌법 : 천연자원 및 기본생산수단의 사유금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br>· 법률 : 非아랍계 외국인의 이라크 기업투자 금지(특정 프로젝트별 계약 베이스 투자 한정), 외국인의 상업 에이전트 금지, 복잡한 회사등록 절차, 상사분쟁시 非아랍국 법원 판결이나 중재결과 불인정 등 |

- 시장 리스크가 높은 만큼 리스크 관리 철저 필요
  · 계약조건, 보험, 고용부문 현지관행과 불가항력 면제 조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테러보호조항 삽입 등

○ 반미감정 확산과 치안불안 등 정정불안으로 정치일정 차질 초래

- 권위주의체제의 인근 아랍국들은 친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주창하는 이라크 신 정부 출범에 대해 강한 거부감

-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시아파를 중심으로 발언권 강화, 반미 움직임 점차 고조

- 신정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도모 목적의 각종 정파·종파간 이해대립으로 인한 정치불안 지속 가능성(80여 정당 난립)

## □ 우리 기업의 인식 : 긍정적 자세와 치밀한 접근

○ 대이라크 대외채무 재조정 및 탕감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 가능성

○ 미국 일변도 전후복구 추진상황을 경쟁국(반전국)대비 우위 확보의 환경으로 인식 필요

☞ 이라크시장 규모와 유가전망을 감안시 80년대초 오일 붐과 같은 대규모 단기특수대신 시장발전 단계별 접근전략 필요

| | |
|---|---|
| 단기 전망 | ○ 미국주도에 대한 여타국의 저항<br>○ UN 및 국제금융기구 등 다자간 협력 필요성 대두 → 국제간 합의 도출<br>○ 반전국가에 대한 전후복구 참여 수용 |
| 장기 전망 | ○ 이라크 민간정부 등장<br>○ 미국의 독점체제 완화, 참여기회 개방<br>○ 입찰 및 수입시장 경쟁 치열 전망 |

□ 각 정부 부처 지원 대책

**재정경제부**

○ 대 이라크 EDCF 지원 강화방안 추진

- 이라크를 중점지원대상국가로 지정(4월 기 지정), 지원조건 완화
- 경쟁력 우위분야 시장진출 확대 지원

**산업자원부**

○ 플랜트 수주지원 강화

- 미국기업과의 공동진출전략과 병행, 이라크인접지역국가 (쿠웨이트, UAE등)와도 전후복구사업 공동진출 방안 추진
- 사우디, 리비아 등에 민관 합동 수주단 파견
- 국내업계간 과당경쟁방지 자율규약 마련 : 플랜트수출자율조정 심의회의 구성 운영
- 중동 주요 발주처 고위급 인사 초청연수 추진
- 중동지역내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에 대하여 에너지 구매와 플랜트 수주 연계방안 추진

○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한 플랜트 기자재 수출기반 조성 지원

- 수출경쟁력을 갖출 플랜트 기자재 업체 발굴 및 Vendor 등록 지원
- 플랜트 기자재 로드쇼 및 현지 기술세미나 개최(4/4분기)

○ **수출 마케팅활동 강화** : KOTRA와 협력, 추경예산 반영 등

○ **수출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 입찰에 참가하여 탈락한 경우 입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장개척보험 제도 개선

  ※ 종전 2개 이상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입찰에서 1개의 국내업체(또는 컨소시엄)만 참여하는 입찰로 보험 부보 요건 완화

- 프로젝트 파이낸스방식 대출지원 확대('02년 3.5억불 → '03년 8억불)

○ **업계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협력시스템 정비**

-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 공정경쟁 교란방지를 위한 조정 명령제도(법 제43조) 개선・보완(8월)

- 플랜트협회내에 자율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자율조정 규약 제정(6월)

## 문화관광부

○ **스포츠 외교활동 강화**

- 2003 대구 하계 U대회 참가선수단 지원
- 이라크 청소년 방한 초청
- 축구 국가 대표간 친선 경기

## 정보통신부

○ IT 인력개발 지원

- PC 무상지원(8월) 및 인터넷 교육훈련 센터 설치('04년)
- 중동지역 IT 분야 정책결정자와 핵심기술인력 초청사업
- 중동 전자정부 건설턴트 과정 운영
-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

○ IT 제품 시장개척 확대 지원

- CDMA방식 이동전화망 표준채택 지원 : 퀠컴회장 접촉
- 유무선 통신망 구축과 정보시스템 통합(SI) 사업 진출지원
- IT제품 홍보활동 강화 : 전시회 참가, 민관시장개척단 파견

## 건설교통부

○ 해외 건설수주 지원 강화

- 경제외교활동 강화 : 해외건설 대표단 미국방문 추진 및 미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 시장조사단 및 수주지원단 파견 : 건교부장관 단장 수주단 파견, 대이라크 시장조사단 파견

## 외교통상부

○ 미국과 적극적인 전후복구 참여방안 협의 등 통상외교 강화

- 파병국 입지 활용한 전후복구사업 참여 추진
- 재건인도처(ORHA) 인력 파견 등

□ 각 유관기관 지원 대책

**수출입은행**

○ 대이라크 수출금융 지원 강화

- 대이라크 특별한도 설정 : 5억불
- 중장기·대형 프로젝트 위주 금융지원 확대
- 단기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융자비율 90% → 95%
- EDCF 지원대상국가에 이라크 포함(기 조치)

○ 프로젝트별 금융지원 다변화

- 이라크 정부기관과 사전 금액·한도 설정 대출한도계약 체결 : 한도 범위내 개별거래 지원 및 지원절차 간소화
- EDCF 자금과 수출금융 혼합신용 확대
- 이행보증성 지원확대 : 선수금 환급 보증, 계약 이행보증 등
- Buy-Back 조건거래 우선 지원 : 원유, 천연가스 개발 등

**수출보험공사**

○ 대이라크 수출보험 지원 강화

- 수출보험 인수 재개
- 플랜트 수출지원용(수출전략형 중소형 플랜트 포함) 중장기 수출보험 확대
- 수출확대를 위한 단기 수출보험도 적극 지원
- 환변동보험 지원확대 및 수입환변동보험 도입(기 조치)
- 석유, 가스전 개발 참여시 판매대금 담보 보험 지원 등

## 3. 企業 部門

□ 주요 발주예상기관(UN 포함) 및 원청 외국기업대상 자사 기업홍보 및 벤더등록, 수주활동 노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전후 복구사업 기 발주 프로젝트중 가장 큰 6.8억불을 수주한 벡텔사의 경우, 하청업체 및 기자재 공급업체 물색 부심

- 우리 기업들은 현대, 두산, LG 건설 등 일부 외에는 기업홍보 부재상태 : 하청 자격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

- 주요 발주 예상기관이나 원청기업 모두 어떤 기업이 어떤 기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 부재상태

- 중동지역에서 쌓아온 신뢰와 건설경험, IMF위기이후 쌓아온 엔지니어링부터 시공까지의 턴키수행능력(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이라크 인근지에 숙련인력 및 중장비 보유, 미군기지 공사참여 경험 등 장점을 최대한 홍보 및 활용

> ☞ '03. 5월 현재 중동 지역에서 우리 업체가 수주한 플랜트 프로젝트는 43건, 총 $ 82.8억(계약금액 기준) 규모

- 원청계약 미국기업과의 콘소시움 구성이나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해 경쟁력보유 분야 중심으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미국 원청기업들이 시간제약이나 진출전략상 중동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부 분야 하청 및 물품공급은 정상적인 입찰과정이 아닌 일방적인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홍보 및 수주전략 추진 필요

## □ 중동 인근국 소재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대체 수단

○ 미국의 대중동전략, 중동국가들의 자국화 정책으로 이라크와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갖고 있는 이집트, 요르단, 터키소재 기업들의 하청참여가 유망하다는 점을 감안,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기자재, 원·부자재 공급가능성 타진

> ☞ 보스니아 재건 프로그램의 경우, 90%이상이 보스니아 국내 하청업체에게 돌아가 이들 업체에 부품기술을 공급해온 독일, 오스트리아 업체의 매출 급증

○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자국경제 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이라크 시장선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쿠웨이트를 벤치마킹 하여 이라크 인근국 기업과의 연대 가능성 적극 모색**

> ☞ Mobile Telecommunications : 쿠웨이트 내의 최대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로, 이라크 이동전화 시장진출 준비(초기 투자 : 3~4억불)
>
> ☞ Wataniya Telecom : Hertz 렌트카 프랜차이즈, 현대 자동차 및 사브 자동차 딜러, 쿠웨이트 면세구역 운영업체로 바그다드에 자동차 수리센터, Warehouse 및 사무실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할인매장, 골프코스 및 휴양지 개발 추진
>
> ☞ National Real Estate Co. : 쿠웨이트 자유무역지대 운영업체로 할인매장, 골프코스, 휴양지 및 주택지 개발 계획

## □ 전쟁복구 특수상품 발굴 및 적극적 현장 마케팅활동 전개

○ 이라크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일상소비재는 중국산이 석권, 타켓 고객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

- 전후복구 특수 유망상품

| |
|---|
| 소형 발전기 세트, 조립식 건축 기자재, 건설 중장비, 차량 유지 보수용 자동차부품, 의료 기기, 면역 의약품, 가스 배관용 파이프, 절연전선 및 케이블, 유무선 교환기, 무선통신 기기, 모포, 냉장고, 가구, 문구류 등 |

□ EPC능력 제시와 자금조달 능력 강화 필요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 중동국가들의 발주프로젝트의 주류인 석유화학분야를 중심으로 대부분 EPC 조건 턴키 형태로 발주

-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첨단 고부가가치분야는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 프랑스등 선진국이 시장을 대부분 석권

  · 아직도 취약한 설계능력, 특히 기본설계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국 건설업체와 전략적 제휴 강화

- 플랜트발주와 함께 기자재공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구매, 조달부문의 경쟁력 강화 : Vendor DB 구축 및 관리, 세계적인 온라인 조달 네트워크 구축 등

- 시공자 금융조달은 해외건설 진출의 관건이나 우리업체들은 선진국업체들에 비해 자금조달능력에서 열세

  · 장기저리융자 등 정부금융지원을 포함한 재원조달방안 강구, BOO, BOT 조건 발주사업 수주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Developer, 투자사, 금융기관 등과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협력체제 구축

  ※ BOO : Built-Own-Operate, BOT : Built-Operate-Transfer

□ UN의 대이라크 인도적 지원물자 조달 적극 참여

○ UN재정의 주요 분담국이자 1,000만불의 인도적 지원,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개도국중 싱가포르와 한국뿐임) 자격 활용

- 난민 구호물자 및 보건위생·의료, 교육용 기자재 공급 등

□ 전후 복구참여 관심 기업간 정보공유, 콘소시움 구축 및 과당경쟁 지양도 과제

○ 국제입찰 특성상 우리 기업간 정보공유, 동종 대기업간 특화 부문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콘소시움 구축이 관건시

-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은 신속한 추진과 미국 국내와 국제 부문을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발주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기업들도 참여기회가 거의 배제된 상태
  : 정치적 연결고리나 발주자와의 유대관계가 거의 없음

- 대형사업인 경우 하청참여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간 또는 대기업과의 콘소시움 구축이 불가피 전망

□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은 장기 프로젝트임을 고려, 내실 있는 진출전략 추진 필요

○ 이라크 신 정부 출범에 대비한 중장기 진출전략을 주도 면밀하게 수립 추진

□ 신속한 현장정보 수집과 이라크 정책변화에 부합된 진출 전략 추진

○ 바그다드 또는 쿠웨이트에 직접 진출하여 구매동향을 “시시각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체제 필요(단, 현지치안에 주의)

○ 이라크 현지여건 및 정부정책 부응

- 고실업 해소를 위해 치안안정후 고용증대 정책 적극 추진 예상
- 현지인력의 높은 기술수준을 고려, 현지고용을 최대화하려는 방식의 정부정책 및 현지여건에 부합한 수주전략 필요

※ 이라크의 대표적인 교량인 7.14다리(현수교)가 걸프전시 50%파괴되었으나 자체기술로 완전 복구

□ 기업브랜드 이미지제고 활동(자동차, 가전등 내구소비재)

○ 경품행사, 경기협찬(특히 축구대회)등 각종 홍보 이벤트로 초기 국산이미지 강화로 경쟁국산과 차별화 추진

※ 국내전자 L사, 2000년부터 공세적인 간판, TV광고로 인지도 제로상태에서 일제 브랜드이상의 브랜드 성가구축에 성공

□ IT, 중소형 플랜트 진출 심화(민간・공공부문)

○ 향후 이라크경제의 成長動因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과 제조용 중소형 기계류 수요에 부응하는 진출전략이 필요

이라크 IT・기계류 수요잠재력

| IT | 기계류 |
|---|---|
| ・전쟁전 위성수신기 시청을 대통령에 탄원할 정도로 외국문화욕구 강함<br>・ 전후 위성수신기 대량유입 | ・유엔 제재 기간중 자체제조업 필요성 인식<br>・ 다수 현지기업인 중소형 제조업 진출 희망 |

## 4. 戰後 이라크市場 進出有望 分野

### 가. 공공 분야

□ 관공서 피 약탈품, 미군 주둔용 물품구매(단기내 구매물량)

| 분 야 | 배경 및 진출전략 |
|---|---|
| 에어컨 | ○ 전후 관공서 약탈시 100% 피약탈, 혹서(하계 50도 이상) 대비한 정부기능 정상화 및 전후 미군주둔 막사용 조기 대량구매 예상<br>○ 한국산은 경쟁력이 있으나 물류면(현지창고 등) 경쟁력 확보 필요 |
| 자동차 | ○ 정부기능 정상화 위해 약탈분 조기구매 필요<br>○ 전쟁전 바그다드 약 130만대 차량중 관용차가 약 20만대<br>○ 기후조건으로 대형차 위주의 미국 강세 예상되나 특장차, 소형분야 국산 진출 시도 필요 |
| 전산장비 | ○ 전후 관공서 약탈시 100% 피 약탈<br>○ 미국형 행정시스템, 조기 행정전산화를 위한 PC, 프린터, 네트워킹 장비 초기 대량구매 예상<br>○ 가격외 납기, 사후관리 경쟁력 제시 필요 |
| 의료장비<br>의약품 | ○ 전후 다수 병원 피 약탈<br>○ 군정의 정상화 1순위(군정 1호, 보건장관 임명)<br>○ 백신, 엑스레이기 등 필수 품목으로 범용 중심, 가격, 납기상 경쟁력 보유 필요 |
| 유선전화기 | ○ 전쟁시 통신시설 파괴 심각(모든 통신 불통)<br>○ 국내전화 등 기초 통신여건 조기회복에 필요한 교환기 대량 구매 예상<br>○ 그간 독점한 중국산(가격), 프랑스산(품질) 동시 고려 필요 |

□ **전후복구 분야**(군정 및 차기 정부 단계별 발주)

| 분야 | 시장 여건 | 진출 전략 |
|---|---|---|
| 발전 배전 | · 전후 지역별 일 4-20시간 단전으로 국민불편 심각<br>· 10개 발전소 개보수 시급<br>· 발전 신규건설 지속추진 | · 기존시설 개보수 프로젝트 단기 이행능력 중요(단기)<br>· 신규 발전소 건설참가 위해 외국 메이저와의 연대 필요 (중장기) |
| 주택 | · 걸프전후 주택공급 중단으로 주택난 심각<br>· 공무원 공급용 대단지 조성 예상(부지 기 확보) | · 대규모 단지 단기 이행능력 우위 확보 필요 |
| 유전 개발 | · 최단기간, 최대 생산목표<br>· 1년내 일산 350만bl 회복 추진<br>· 일산 600만bl 목표(4-6년) | · 파이프라인 공사, 특장차, 파이프 등 하청공급 시도 필요 |
| 상.하 수도 | · 전후 단기간내 10개 주요도시 상하수도 처리시설 복구계획 | · 과거 공사이행 실적, 공사기간, 가격면 국산 경쟁력 보유 |
| 공항 | · 2개 국제공항 정상화, 확장 공사 2003년중 추진(단기)<br>· 3개 국내공항 확장(2-3년후) | · 경쟁력 보유 분야 특화 필요 |
| 정유 | · 전후 석유파동으로(전쟁전 38만bl) 국민고통 심각<br>· 기존설비 개보수 시급<br>· 걸프전이전 75만bl/일 회복을 위한 신규 발주예상(2-3년후) | · 주변 아랍국 공사 이행실적 홍보, 메이저 외국기업과의 연대 필요 |
| 통신 | · 통신시설 전파상태<br>· 유선통신 복구를 위한 교환기 구매 단기간내 급증예상 (18개월내 2억불 투자계획)<br>·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무선통신 조기 추진 예상 | · 유선교환기: 중장기 유지보수 수요대비 초기 전략적 가격 책정 필요<br>· 무선통신 : GSM. CDMA 방식 선정에 따른 메이저와 연대 필요 |
| 기계 | · 국영기업(제조업 약 60개) 가동율 20%이하 불과<br>· 고용유지를 위한 개·보수, 신규 설비도입 본격 추진예상 | · 중소형 분야 국산 경쟁력 발주기관 홍보 필요 |

## 나. 민간 수요

### □ 민간수요 잠재력

○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구매력의 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2002년 아국의 대이라크 공식수출(약 8,60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자동차부품. 가전 등)이 인근국을 통한 민간반입 형태로 간접 수출됨

### □ 민간수입 확대 요건 : 정치 및 치안안정이 관건

○ 이라크 기업인 사업의욕 고취,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거주 이라크인(특히 기업인)의 귀국유인 전제 조건

### □ 민간수요 유망품목

○ 단기 : 2003년 하반기까지

| 품 목 | 수 요 동 향 |
|---|---|
| 위성수신기 | . 전후특수 대표 품목<br>. 국산 두각(전후 약 5만대 수입)<br>. 중국산 대비 신기술 개발이 중장기적 우위 과제 |
| 중고자동차<br>자동차 부품 | . 전후 구매력 회복시점까지 중고 선호 지속 따라 귀국자 구매 증가 |
| 위성전화기 | . 통신단절로 수입 급격 증가 |

○ 중장기 :치안. 통신 정상화 이후

| 품 목 | 수요 전망 | 진출 방안 |
|---|---|---|
| 중소형 발전기 | . 단전해소에 장기간 소요 예상되어 지속적 수요증가 예상 | . 저가 중국, 고가 이태리산과 차별화 필요(사후관리등) |
| 건설장비 | . 전후 현대화에 따른 건설수요 급증<br>. 민간소득 수준 향상 시 민간중심 건설붐 전망 | . 전후 복구사업 진척에 따라 틈새시장 개척 가능(굴착기, 페이로더, 트럭) |
| 자동차 (신차). 부품 | . 경제제재 해제시 이전 사실상 금지 되어 온 신차수요 급신장 예상<br>. 총 200만대의 자동차 중 4만대의 국산 유지보수용 부품수요 지속 증가 예상 | . 현지딜러 대형화 유도<br>. 공격적인 판매전략, 가격우위, 마일리지 확대등 비가격부문 강화, 일제수준 인센티브, A/S망 구축 |
| 건축자재 | . 국가 재건따른 전반적 건설 활황세 | . 현지진출 국내건설사 및 현지 유력사와 연대 필요(배관, 전선, 수도관, 철근등) |
| 전선 | . 현재 70만 회선에 불과한 통신시설 확충, 민간용 수요증가 예상 | . 저가 터키산과의 차별화가 관건 |
| 무선통신 단말기 | . 전후 필요성 증가와 국민관심 고조로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예상<br>. 투자비용, 보급 용이성 감안, 유선보다 무선위주 투자확대 가능성 | . 국산인지도 부족, 전후 수요 급증 대비 국산장비 우수성 홍보를 통한 이미지 업, 유력 파트너 선정을 통한 선점전략 필요 |
| 직물 | . 인구 급증, 전쟁발생, 경제제재 해제따른 수요 급신장 예상 | . 유력거래선 발굴, 현지유통망등 초기 공세 마케팅필요 |
| 가전 및 부품 | . 전후 경제제재 해제, 생활안정따른 소비심리 회복시 신품 및 교체 수요 막대 예상<br>. 전압 불안정으로 부품수요 지속 | . 국산 이미지 일제 수준<br>. 초기 중국산 가격공세, 일제 물량공세 대응한 가격구조 각종 이벤트/홍보활동 강화 |
| 중소형 기계류 | . 전후 생필품 자체생산활동 급신장 예상 | . 내구성 위주, 반자동타입 등 현지수준에 부합한 기계로 초기 가격위주 접근 필요 |

## □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 등 현지생산 적극 검토

○ **대상 분야** : 자동차, 가전, 부품, 소비재

○ 고용유지, 노동력(UN제재 하에서 노동숙련도 향상), 시장경쟁 격화 감안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제조 필요

# Ⅴ. KOTRA의 支援 對策

## 1. 기본 전략

- ○ 선택과 집중에 의거 가시적 결과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업계의 전후복구사업 수주지원 대책 강구
- ○ 이라크 민간 수입수요 적극 발굴 수출증대로 연결
- ○ 중동시장 플랜트 및 일반 수출상품 마케팅 활동 강화
- ○ 업계 애로타개 지원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 A/S 활동

## 2. 세부 지원 대책

□ 본사 대책반 활동 강화

| 『이라크전후복구사업 수주 지원센터』 설치・운영 |
|---|

○ 『Digital KOTRA』 내에 『인터넷 수주지원센터』 운영

- 발주예정 프로젝트 정보, 원청 및 하청수주 유력기업 정보 등 탑재
- 국내업체 등록공간 별도설치, 매치 메이킹 기초정보로 활용
-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맞춤정보 Push Service 시스템』 구축중

○ 대책반내 중동시장진출 『국내업체 상담 및 애로지원데스크』 운영

○ 중소기업의 Vendor 등록 안내 서비스

- Vendor 등록절차, 서식준비 및 등록 가이드 정보 제공
- 각 발주기관, 원청 및 하청업체 소재 무역관과 협조체제 구축

□ 무역관별 활동 방향

**정보수집 활동**

○ 미국의 이라크 전후복구 프로젝트 정보: 미국지역

- 기본 프로젝트, 원청기업 및 접촉대상자(구매담당자) 인적사항
- 전후복구사업 참여 주요 컨설팅업체 및 법무법인 정보
- 하청업체 및 벤더(Vendor)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구비요건 등

○ 이라크 과도 및 민간정부와 민간부문의 전후복구계획 정보, 동 프로젝트 참여시 협력가능 유력업체 및 바이어 정보

○ 이라크외 중동지역국의 플랜트 프로젝트 정보 : 중동산유국

**정보전파 활동**

○ 이라크 戰後복구 시장진출 방안 설명회(5.27, 250명 참가)

- 연사 : 중동본부 바그다드 테헤란 등 4개 무역관장 및 이라크 바이어

○ 미·영 중동 주요 기업 및 바이어 정보 DB 구축, 대업계 제공

- 벤더 등록 기초자료로 제공

  · 전후 복구사업 프로젝트 원청 및 주요 하청대상기업 정보
  · 전후복구사업 협력가능 중동기업, 바이어 및 에이전트 정보

## 실질적 성약지원을 위한 Match-Making 사업 확대

○ 중동 수출상담회 확대 개최

- 중동 전후 특수 수출상담회 개최 (5.27 ~ 28)
  · 중동지역 160여 바이어 초청, 서울, 인천 등 순회 상담회

- 『유력 발주처 및 구매담당자 초청 플랜트 수출 상담회』(신규,11월)

- 『기계류 및 부품수출상담회』(11월) 개최 등

○ 이라크 진출 미국 원청업체와 상담회 개최(6.9-12, 워싱톤)

- 현지상담업체 : 이라크 복구 관련 발주처 및 주요 원청업체

  · 계약 발주처 : USAID, Army Corps of Engineering
  · 원청업체 : Bechtel, Kellogg, Brown & Roots(KBR), Creative Associates, Abt Associate 등 4개사

  ※ 상담대상 원청업체수 : 5 - 8개사로 확대 추진

- 참가국내기업 : 대기업 위주 10-15개사
- 참가 국내업체수 : 복합 프로젝트 수주능력 보유 10 - 15개사

○ 이라크 전후복구참가 서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7월초)

- 설명회, 개별 상담회 순차 개최
- 연사 : 미국 4대 로펌(Patton Boggs) 전문변호사 3명
  ※ USAID 발주 프로젝트 수주7개중 벡텔 등 4개사가 고객
- 개별 상담회는 하청수주 및 건설기자재 공급 가능업체 중심

○ 이라크 전후복구 참가 한・쿠웨이트간 상담회 개최(6.29-30)

- 현지 상담업체 : 쿠웨이트 또는 인근국내 이라크 진출가능업체
- 참가 국내기업 : 대기업 및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 국내 참가기업 협의체 구성

- 복합 프로젝트 수주능력 보유 관심 업체들로 구성
- 효율적인 수주활동 추진을 위한 관련정보 교류 등

○ 『쿠웨이트 및 UAE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11~12월중)

- 국내 100여개사 전시 참가 추진
- 건설장비・기자재, 자동차, 전기・전자, IT, 정보통신 등 유망품목 중심

○ 이라크 등 중동시장 Target 개척단 파견 : 총 14회(5월 이후)

- 업종별 시장개척단 (의약품, 금형, 전기, 기계 등) : 6회
- 지자체 종합품목 시개단 (경기, 인천, 창원 등) : 8회

첨부 #1

1. 美 國際開發處(USAID)의 기 발주시설 및 규모
: 총 17억불 규모중 10.2억불 상당 발주 완료

① 공항, 항만, 발전소, 상수도 시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 : 6.8억불

- 미국 Bechtel Group(샌프란시스코 본사)
→ 영국, 호주, 폴란드, 이라크 기업에 부분 하청 전망

- Bechtel사 주요 수주 내역
  · 2개의 국제선공항과 3개의 국내선 공항, 식수공급, 발전소 재건, 도로, 학교, 병원과 관개시스템 건설 등 이라크 주요 인프라를 망라

  · 특히 이라크 남부에서 운하를 따라 페르시아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라크 유일한 항구인 Umm Qasr항구 재건이 가장 중요

② 움 카스르 항만 복구공사 용역 : 480만불

- 미국, SSA사(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

③ 초등 및 중등교육 복구 자문 : 63백만불

- 미국, Creative Associates International Inc.(워싱톤 소재)
  · 420만명 학생의 절반에게 학용품등 교육기자재 제공,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 재교육, 2004년까지 조기교육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보급
  · American Manufactures Export그룹이 학용품 및 신발 공급 업체로 하도급 받음(한국으로부터 기자재 구매 가능성)

④ 재건복구계획 기획 및 감리 용역 : 710만불

- 미국, IRG(International Resources Group, 워싱톤 소재 컨설팅사)
  - Personnel Support계약을 통해 SOC, 에너지, 농업, 교육, 보건 분야 등의 **복구사업 계획, 감독, 조정, 운영, 보고 등 핵심역할 담당 전망**
  - 미국은 물론 전세계 90여개 국가 정부를 고객으로 확보, 이사진 9명중 4명이 USAID출신

⑤ 지방행정 복구 자문 서비스 : 168백만불

- 미국,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비영리단체)
  - USAID가 주요 고객. 이라크 신 정부 출범까지 지방정부 기반 및 지역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침 마련 (외국 NGO에게 하도급 계획)

⑥ 유정진화 및 개발권 : 5천만불(향후 70억불 상당 추정)

- 미국, Halliburton Inc.사 (에너지개발기업, 텍사스소재)
  - 체니 미 부통령이 95- 2000년까지 CEO 역임, 아프가니스탄 전범수용소인 쿠바 관타나모 기지 건설 등 군 조달 사업 대거 참여

⑦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및 의료 기기 공급권 : 44백만불

- 미국, Abt Association Inc.(매사추세츠 캠브리지 소재)
- 이라크의료시스템 복구사업
  - 이라크 보건당국에 대한 의료시스템 복구자문, 긴급한 의료품 및 기기 공급

⑧ 공항관리 : 250만불

- 미국, SkyLink Air and Logistic Support Inc.

첨부 #2

## 2. 이라크 戰後復舊事業 參與(豫想) 美國業體 情報

- 북미지역본부 및 미국 주재 무역관 제공 정보 종합

### 1) Bechtel Group Inc. (San Francisco 소재)

□ Capital Construction 분야 프로젝트 수주

○ 4. 17일 총 6억 8천만불 중 1차분 34.6백만불 계약

- 이라크 2개 국제선 공항, 3개 국내선 공항, 식수공급, 발전소재건, 도로, 병원 등 주요 인프라 및 Umm Qasr 항구의 재건 공사

□ 하청기업 모집

○ 하청업체는 등록을 통해 국적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

- 등록방법
  - 웹사이트 접속 (http://supplier.bechtel.com/bni/usaid)
  - 환경,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벡텔의 규정 수락 여부 체크
  - Go to Bechtel Supplier & Contractor Portal 클릭
  - ID 및 암호 등록 (Register)
  - D&B 데이터베이스 기업정보 검색
  - 기업정보 입력

○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Dun & Bradstreet을 통하여 Duns 번호 확보후 벡텔의 포탈 사이트를 통해 공급/도급계약 의향서 제출

- Duns 번호는 미국소재기업은 웹사이트(http://www.dnb.com)에서 무료 신청
- 한국국내기업은 Duns번호를 웹사이트(http://www.dnbkorea.com) 에서만 등록 신청 가능(등록비: 30,000원 - 100,000원 수준)
  - 재발급, 정보변경, 신규발급, 발급 소요일수에 따라 차별

## □ 연락처

○ 본사
- 책임자 : Terry Valenzano, Project Chief and Managing Director
- 주 소 : 50 Beal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5-1895
- 전 화 : 415-768-1234 / FAX : 415-768-9038

○ Frederick, Maryland 지사
- 주 소 : 5275 Westview Drive, Frederick, MD 21703-8386
- 전 화 : 301-228-6000 / FAX : 301-228-2200

**< 벡텔사 구매예정 주요품목>**

◇ 건설기자자재 :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등 255개 품목
◇ 토목공사용 자재(Civil/Site) : 상하수도 및 철도 등 30개 품목
◇ 콘크리트 및 더킹 : 아스팔트 등 23개 품목
◇ 전기관련제품 : 패널, 발전설비, 위성수신기, CCTV카메라, 퓨즈 등 466개 품목
◇ 화스너제품 : 볼트, 스크루 등 16개 품목
◇ 환경 기자재 : 특수 가스 모니터 등 7개 품목
◇ 제어 계측 기기 : 분석기, 가스 모니터 등 205개 품목
◇ Mechanical/Process : 히터, 환풍기 및 보일러 등 688개 품목
◇ 용접, 단열, 내화, 코팅 : 내화벽돌 등 29개 품목
◇ 배 관 : 파이프, 피팅 등 150개 품목
◇ 구조사용 자재 : 철 구조물, 격자 등 13개 품목
◇ 기타 자재 : 스캐폴딩 등 4개 품목

## □ 참고 사항

○ 세계 1위의 EC(Engineering & Construction)업체, 영·불 터널공사, 체르노빌 핵처리 작업 등 주도

- 조지 슐츠 전 국무부장관, 캐스퍼 와인버거 전 국방부장관 등을 이사진에 영입, 공화당 수뇌부와 밀접한 관계(정실수주 논란)

○ Bechtel사 측은 관심 있는 한국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안을 갖고 Bechtel 본사와 직접 접촉해 줄 것을 희망

○ Duns 번호는 웹상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D&B 한국사무소 (82-2-761-1070)를 접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벡텔사의 벤더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텍사스에 있는 Central Procurement Div.(1-800-932-0025)이나,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벤더관리를 동 부서가 담당하게 될지는 불투명

- 이라크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담당 부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대림산업 (발전소, 석유화학공장 재건관련), 현대건설(도로, 항만 재건관련) 등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동사의 조달본부 (1-202-828-5200) 방문 확인상황

## 2) Research Triangle Institute

□ 지방행정 및 자치 재건 사업

○ 총 1억 67백만불중 1차분 7.9백만불 계약

□ 본사 연락처

○ 책임자 : Ron Johnson,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 주 소 : 3040 Cornwallis Road, P.O. Box 12914, Research Triangle Park, North Carolina 27709-2194
○ 전 화 : 919-541-6000
○ FAX : 919-541-5985
○ e-mail : listen@rti.org

### 3) Stevedoring Services of America

□ 항구관리 사업 : 총 4.8백만불 중 전액 계약

□ 본사 연락처

○ 책임자 : Jon Hemingway, President
○ 주　소 : 1131 SK Klickitat way, Seattle, WA 98134
○ 전　화 : 206-623-0304
○ FAX : 206-623-0179

### 4) Creative Associates International

□ 초등·중등교육 지원사업 : 총 62.6백만불중 1차분 2백만불 계약

□ 본사 연락처

○ 책임자
- 사장 : Charito Kruvant
- 실무책임자 : Stephen Horblitt
- 전화 : 202-572-1326
- e-mail : steveH@cali-dc.com

○ 주　소 : 5301 Wisconsin Ave.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15
○ 전　화 : 202-966-5804
○ FAX : 202-363-4771
○ e-mail : creative@cali-dc.com

### 5) International Resources Group

□ 계획 및 경영 사업 : 1차분 7백만불 계약, 총 사업규모 미정

□ 본사 연락처

○ 책임자
- 부사장 : Cynthia K Pflugh
- 담 당 : Paul Liberty
○ 주 소 : 1211 Connecticut Ave.,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36
○ 전 화 : 202-289-0100
○ FAX : 202-289-7601

## 6) Halliburton

□ 이라크 유전 수리 및 화재 방재 분야 : 5천만불 계약

□ 연락처

○ 담 당 : Wendy Hall(P.R.)
○ 주 소 : 10200 Bellarire Blvd., Houston, Texas 77072
○ 전 화 : 713-767-5227
○ e-mail : wendy.hall@halliburton.com

## 7) Parsons Corp. (California 소재)

□ 재건사업 참여계획

○ Parsons사의 조달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Parsons사는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 발주한 이라크 재건사업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한 이후 현재로서는 이라크와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음

□ Parsons사가 재건사업에 참여할 경우 담당자

○ 담당자 : Mr. Larry Owens
○ 부서 및 직책 : Manager of Procurement
○ 연락처 : 626-440-6182, larry.owens@parsons.com

□ 참고 사항

○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슨즈사는 조만간 실시될 미 공병대의 석유재건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

## 8) Fluor Corp. (California 소재)

□ 발주계획 및 진행상황

○ 이라크 석유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영국의 선도적인 토목 건설업체인 AMEC사와 합작법인 출범 (4.24일)

○ 미 육군공병대가 이라크 석유시설을 재 가동하기 위해 곧 공개입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출범시킨 미·영 두 회사의 신규 법인은 Fluor사가 51%, AMEC사가 49%를 출자하고 각종 기술과 자원, 경험을 공유하게 됨

○ 인천-영종도간 연륙교 공사 등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AMEC사와 Fluor사는 미국, 캐나다는 물론 앙골라, 필리핀 토목 건설시장에도 공조를 유지

□ 프로젝트 담당자

○ 담당자 : Mr. Ron Oakley
○ 부서 및 직책 : President of Government Group
○ 연락처 : 1-949-349-7030

## 9) Washington Group International Inc. (Idaho 소재)

□ 발주계획 및 진행상황

○ Washington Group은 **설계, 건설, 시설 유지관리** 회사로 재건사업의 참가경험이 있으며, 이라크 재건 사업에도 참여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

○ USAID를 통한 재건사업의 직접참여가 아닌 US Army Corps of Engineers (www.usace.army/mil)를 통해 이라크 재건사업을 포함한 중동사업

○ 아직 이라크 재건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본사 연락처

○ 실무책임자 : Larry Shaw (609-720-3685)
○ 주　소 : 510 Carnegie Center, Princeton, NJ 08540 또는
P.O. Box 5287, Princeton, NJ 08543-5287
○ 전　화 : 609-720-2000
○ FAX : 609-720-2050

□ 프로젝트 담당자 (예정)

○ 담당자 : Mr. Vince Poxleitner
○ 부서 및 직책 : Area Office Manager in Egypt
○ 연락처 : 202-378-1958 (이집트, 카이로)

□ 재건사업 참가희망 벤더 모집

○ 벤더 모집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참가희망 벤더는 Procurement Department에 우편으로 회사관련 자료 송부 희망

○ 담당 부서 연락처

- 담당자 : Mr. William Lauderdale
- 직　위 : Procurement Purchasing Agent
- 연락처 : 208-386-5000
- 주　소 : 720 Park Blvd., P.O. Box 73 Boise, Idaho 83729
- 웹사이트 : www.wgint.com

○ 제출요구자료

- 회사개요 (약력포함)
- 브로슈어
- 최근 2-3년간의 재무관련 자료 (필수사항 아님) 등

※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동사의 벤더는 25개국 600여 개사

## 10) Kellogg Brown & Root (Houston 소재)

| |
|---|
| ◇ Halliburton사가 딕체니 부통령이 경영에 참여했었다는 이유로 반대여론에 부딪쳐 재건사업에 직접적인 참여를 포기했으나 하청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이 확실<br><br>◇ 자회사인 Kellogg Brown & Root International Inc.를 통해 유전 재건 및 관리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작업 추진 중 |

### □ 발주계획 및 진행상황

○ 미 공병단 (U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는 이라크 유전 화재진압 및 재건업무에 대한 독점계약을 Halliburton 자회사인 KBR (Kellogg Brown & Root)사와 체결

○ KBR측은 동건에 대한 하청업체로 Boots & coots International Well Control 사와 Superior Energy Services 사의 자회사인 Wild Well Control사를 선정

### □ 프로젝트 담당자 (예정)

○ 담당자 : Mr. Robert Harl (프로젝트 담당자)
Ms. Margret Munster (자재 담당자)
○ 연락처 : 713-676-3011
○ 주 소 : 4100 Clinton Dr. Houston, TX 77020-6237
(우편용 : PO Box 3 Houston, TX 77001-0003)

### □ 협력방안 및 진출시 유의사항

○ Halliburton사의 자회사로 oil rigs and metal fabrication 분주 계약업체

○ Halliburton사의 재건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재건사업에 협력업체로서 참가를 원하는 한국기업은 Hailliburton사보다는 오히려 KBR사와 접촉을 하는 편이 효과적

### 11) 기타 참여(예상)업체

□ Louis Berger Group Inc. (New Jersey 소재)

○ 건설분야에 입찰할 것으로 전망
○ 전후재건 사업관련 담당은 워싱턴에 소재
- 회 장 : Derish Wolff
- 담당자 : Mr. S. Stewart
- 연락처 : 202-331-7775, sstewart@louisberger.com
- 주 소 : 1819 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 Boots and Coots

○ KBR의 하청업체로 유전화재 진압업무에 투입
- 담당자 : Mr. Danny Clayton
- 연락처 : 713-621-7911, wellcontrol@bncg.com
- 주 소 : 777 Post Oak Blvd Ste 800 Houston, TX 77056-3215
- 홈페이지 : www.bncg.com

□ Wild Well Control

○ Boots and Coots사와 경쟁관계
- 담당자 : Mr. Freddy Gebhardt
- 연락처 : 281-353-5481
- 주 소 : 22730 Gosling Rd. Spring, TX 77389-4401
- 홈페이지 : www.wildwell.com

첨부 #3

## 3. 對中東 플랜트 受注 現況 및 發電市場 規模

□ '01년 이후 중동지역은 국내 플랜트 업계의 최대시장으로 부상

○ '03. 3월 중동 7개국에서 우리업체가 시공중인 플랜트 프로젝트는 40건, 총 $ 76.6억(계약금액 기준) 규모임

- 정부측 대중동 플랜트 수주 마스터플랜은 2005년도 100억불, 2010년도 500억불 수주 목표

- 우수한 EPC 수행능력 바탕으로 플랜트 건설비중 확대
  · Engineering 능력, logistic을 기반으로 하는 Procurement 능력, IT기술 등 EPC 능력증대를 바탕으로 플랜트 건설수주가 매년 40~50%씩 증가

○ 이란, 리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전 개발이 주종

- 이란의 사우스파스 4, 5단계 및 9, 10단계 수주로 우리나라 해외 플랜트 수주실적의 52%를 차지하는 이란과 리비아가 주무대

지역별 플랜트 수주실적 추이

($억, %)

| 구 분 | 00년 | | 01년 | | 02년 | |
|---|---|---|---|---|---|---|
| | 실 적 | 비 중 | 실 적 | 비 중 | 실 적 | 비 중 |
| 계 | 84 | 100 | 101.4 | 100 | 100.6 | 100 |
| 중 동 | 23.8 | 28.3 | 35.3 | 34.8 | 49.4 | 49.1 |
| 아시아 | 30.5 | 36.3 | 25.7 | 25.3 | 23.6 | 23.5 |
| 아프리카 | 7.8 | 9.3 | 18.4 | 18.1 | 18.8 | 18.7 |
| 북 미 | 12.0 | 14.3 | 15.8 | 15.6 | 6.7 | 6.7 |
| 중남미 | 5.8 | 6.9 | 1.2 | 1.2 | 0.3 | 0.2 |
| 유 럽 | 4.1 | 4.9 | 3.6 | 3.6 | 1.8 | 1.8 |

□ 이라크 전후 중동산유국은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그 동안 지연되어온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및 脫석유 산업화 본격 추진 전망

○ 향후 5년간 $3,700억 규모 정유·석유화학·발전·담수 플랜트, 경공업 설비 발주 예상(세계은행 전망)

○ 주요 국별 발주예정 주요 프로젝트 현황('03년)

| 국가 | 발주규모 | 주요 프로젝트 |
|---|---|---|
| 이란 | 34억불 | 이란 사우스파스 가스전 개발 11-13단계(30억불) 등 |
| 사우디 | 33억불 | 쇼아이바 담수발전 플랜트(10억불) 등 |
| UAE | 30억불 | 후자이라 담수발전 플랜트(9억불) 등 |
| 오만 | 30억불 | 무스카트 폐수처리 플랜트(2.5억불) 등 |
| 리비아 | 35억불 | 멜리타-시칠리간 가스관 공사(10억불) 등 |
| 쿠웨이트 | 65억불 | 아흐마디 신 원유수출항 건설 플랜트(10억불) 등 |
| 카타르 | 52억불 | 돌핀 육상 가스처리 플랜트(15억불) 등 |

**걸프지역국가들, 20년간 발전소 건설에 1,300억불 투자 필요**

○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협력위(GCC) 6개 회원국은 늘어나는 인구 및 산업용 수요에 맞춰 향후 20년간 약 $ 1,300억에 달하는 전력부문 투자가 필요(IIR 보고서)

- 사우디가 2023년까지 약 $1,150억을 투자하여 '01년말 현재 23,583MW의 전력 생산량을 7만MW로 약 3배나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

- 아랍에미리트는 2012년까지 '99년말 기준 총 전력량에 해당하는 약 8천MW의 전력생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군소 걸프연안 국가들의 경우도 에너지 수요 증가율을 감안할 때 매년 평균 7%~10% 정도의 전력설비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

※ 전세계 평균 에너지 수요증가율이 3%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이며 통상 1천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약 $10억이 소요되므로 향후 20년간 GCC 전체에 필요한 13만MW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무려 $1,300억이 필요

○ GCC지역 전력수요 급증원인

- 오일머니 붐을 타고 세계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 지하수가 고갈되어 해수정제를 위한 담수화 전력투자 수요 급증, 비 석유부문 투자증가 등 임

※ 걸프지역 인구는 현재 약 28백만명 정도이나 2010년이면 무려 4천만명으로 늘어날 전망(걸프지역 인구증가율이 대부분 국가에서 3-4%임)

첨부 #4

## 4. 이라크 主要 産業 現況

### □ 농 업

○ 석유 다음으로 중요한 산업
- 주 작물은 밀, 보리, 쌀, 면화, 대추야자 등임

○ 경지면적은 전국토의 1/5정도이며 북동부 지역과 메소포타미아지역이 중심지
- 최근의 지속된 한발과 후세인 정권의 실정으로 곡물의 70%를 해외에 의존할 정도로 황폐화

○ 애로 사항
- 대부분 생산시설의 국유화로 생산성이 낮고 관개시설 관리 부실
- 사막화 진행

○ 전 망
- 비옥한 토질과 잘 훈련된 인적자원을 감안시, 적절한 투자와 농경기법이 도입될 경우 생산성의 대폭 향상도 가능

### □ 원 유

○ 원유매장량 세계 2위(1,120억 배럴), 천연가스 세계10위(110조 입방 피트)

- 특히 석유자원은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자원으로, 전체 외화 수입의 95%, GDP의 75%를 점유
- 원유수출액은 단기적으로 연간 130-150억불 전망
- 주요 유전은 남부의 Rumalia, 북부의 Kirkuk이 대표적

○ 애로 사항

- 지난 20여년간 석유 생산시설은 극히 노후화되어, 91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도 3년간 50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금번 전쟁으로 석유시설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없었으며, 남부 이라크의 9개 유전의 화재는 진압됨

  ※ 현재 美공병대가 투입되어 석유 생산시설 복구작업을 수행 중

○ 전 망

- 석유생산시설을 최대한 가동하는 경우, 연간 240억불의 외화 수입이 가능하나, 절반은 채무 탕감에 사용해야 할 형편임

  ※ 향후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서방 선진국간의 협의가 예상됨

## □ 공 항

○ 공항 현황

- 국제공항(2개소) : 바그다드, 바스라
- 소형 비행장(3개소) : Hadithat, Kirkuk, Mosul

○ 애로사항 및 전망

- 민간 항공산업 여건은 극히 낙후되어 있으며, 현황에 대한 관련자료도 미비한 상태
- 향후, 항공통신 장비, 비행기 부품, 보안장비의 판매 및 여객 서비스, 건설 등에 진출할 여지가 있음

## □ 항 만

○ Umm Qasr과 Basra 항구가 가장 중요한 상업항으로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음

- Basra와 인근의 Khawar az Zubayr 항구는 이란-이라크 전쟁시 폐쇄되어 현재까지 미 개항 상태
- Umm Qasr는 걸프전시 피해를 입었으나, 93년 11월 재 개항됨

○ 애로 사항

- 모든 항구들은 기술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인프라개선이 필요하며, 항구에 많은 난파선이 산재하여, 정지작업이 시급함

## □ 철 도

○ 현 황

- 주요 철도간선은 Baghdad-Kirkuk-Irbil선, Baghdad-Mosul-Yurubiyah선(터키와 연결), Baghdad- Maaqal-Umm Qasr등 3개 선임
- 2000년에 Mosul-Aleppo-Syria선이 재개됨

○ 애로 사항

- 2002년도에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서비스가 단속적이어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

○ 전 망

- 현재 진행중인 대부분의 철도 인프라 개선사업은 미국제개발처(USAID)의 Capital Construction Contract의 일환으로 Bechtel이 수주하여 수행 중임

## □ 도 로

○ 현 황

- 이라크의 도로 총연장은 24,000마일로 이중 84%가 포장되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
- Baghdad 인근을 중심으로 많은 교량의 보수가 필요하며, 도로망 전체 상황은 현재 진행중인 평가조사 결과에 따라 파악될 것으로 보임

○ 전 망

- 대부분의 도로망 재건프로젝트는 USAID가 Capital Construction 일환으로 발주할 것으로 보임

## □ 전 력

○ 현 황

- Oil for Food 프로그램으로 식량 다음으로 많은 자금이 전력 분야에 투입되었으나,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사업참여 기회가 많은 분야 중 하나임

- 지난 91년 걸프전으로 파괴된 전력시설들이 아직 50%도 복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03년 이라크전으로 추가 파괴되어 이라크 전력상황은 최악 상태

  · 주로 Baiji와 Mosul의 화력발전소, 티그리스강의 Sadam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나, 2003년도 추계로 총 생산이 4.5기가 와트에 불과하여 6.6기가와트에 달하는 현재의 수요에 크게 부족

  ※ 바그다드시내의 경우 현재 하루 8시간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음

- 단순 복구 차원이 아닌 지속적인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하며 2015년까지 연간 생산량이 10,000~15,000 메가와트씩 증가해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 복구 현황

- 대부분의 전력 프로젝트도 USAID와의 계약에 의해 Bechtel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바스라는 60%가 정상화(영국 National Grid Transco and Powergen사가 영국군과 함께 정상화 작업에 참여)

  · 바그다드는 약 65% 복구

- 미군부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그다드 전력시설의 약 65% 가량이 정상화 됨

○ 전력 서비스 정상화 장애 요소

- 주요 발전시설 가동에 필요한 연료 부족
  · 석유나 천연가스등의 연료를 생산하려면 터빈 작동을 위해 전기 공급이 정상화되어야 하나 연료 부족으로 전력 생산에 차질 초래

## □ 단계별 추진 시나리오 (MEED지)

☞ 처음 60일간
- 비상 발전기는 병원, 상수 펌프장 및 기타 주요 시설에 우선 설치
- 550개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 설치

☞ 6개월째
- 고압(132KV, 33KV)배전망의 15%, 주요 지역의 변전소 50개 및 발전소 5개가 복구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의 40%가 전기를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

☞ 12개월째 : 6,750 MW의 전력 생산이 예상

☞ 18개월째
- 변전소 60개와 발전소 5개가 추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
- 이 시기의 총 전력 공급량의 목표치는 1991년 이전 수준의 75%

## □ 이라크전 발발전 기 체결된 전력사업계약 유효 여부

○ UNDP에 의해 승인되거나 독립적으로 이라크 정부와 체결한 기존의 발전설비 계약
- 걸프전 이후 UNDP(UN개발계획)가 승인된 총 27개 이라크 전력 산업 복구 프로젝트 중 현재 12개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15개의 계약은 아직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
- 이라크 정부 독자체결계약의 대부분 프랑스나 러시아기업들이 수주

○ 러시아 최대 기계 그룹 Silovye Mashiny는 연간 64메가와트를 생산하는

7천 5백만불의 수력 발전설비 계약 체결.

- 이 계약은 2002년도에 모스크바와 바그다드 사이에 체결된 4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다년간 무역협정의 일환인데, 금년 여름부터 2007년까지 전력 설비관련 물자를 조달하기로 되어있음

○ **상기 계약들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美 관계자나 벡텔사 모두 언급 회피**

## □ 상・하수도

○ 현 황

- 상・하수도 처리시설은 관리 부재, 부품 부족, 전쟁, 기술요원 부족 등으로 극히 열악한 상태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 도시 거주자의 90%가 상수도 시설에 연결되어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고 수도관이 노후되어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50% 미만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음

- 현재 정수시설의 50%는 작동이 안되며, 나머지 25%도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임
- 바그다드는 폐수처리시설의 부족과 시설 낙후로 하루 약 500,000톤의 폐수가 미처리 상태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어, 각종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야기하고 있음

○ 전 망

- 상・하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도 USAID의 Capital Construction에 의해 추진될 계획임

## □ 통 신

○ 현 황

- 유선전화보급율 :**100명당 3명 미만**(70만회선 정도)
- **무선통신망은 거의 전무**한 상태
  - · 현재 모든 국내외 통신 단절, 위성시스템 사용(외국인, 기업인)
  - · 쓰라야(Thuraya, UAE의 위성통신) 전화와 군용 통신 시스템이 유일한 통신수단
- 걸프전을 비롯한 수십년간 지속된 전쟁 결과 통신 인프라가 상당 부분 파괴

전화보급률 (인구 1000명당 전화 회선수)

| 년도 | 1980 | 1990 | 1996 | 1999 |
|---|---|---|---|---|
| 전화보급률 | 19 | 37 | 33 | 30 |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 전쟁 기간 중 전화 중계시설과 도시간 전화망은 크게 훼손되었으나, 바그다드를 제외한 타 지역의 통신망은(바그다드의 전화통신국은 완전히 파괴됨). 대부분 수리,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전 망

- 현재의 통신분야 인프라 사정을 감안할 때, 통신시설의 복구와 효율적인 통신시스템의 조기도입이 경제재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

- 전화 통신시설이 복구, 개선되기 전까지는 모바일 폰 등 무선통신시스템의 도입이 당면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지방 도시에 대한 TDX보급도 고려할 만한 사업임

○ 통신망 정상화 기간 및 비용 예측

☞ 통신시설 정상화를 위해 **최소 4-5개월 소요 예상**
- 단, 바그다드 시내 bare-bones cellular system 약 1개월 정도면 완성(무선시스템 적용)
- GSM/CDMA 방식 채택 여부를 두고 미국내 이해기업간 대립중
- 주요 참가 예상업체
  - GSM 방식 : Motorola, 하청예상기업 : 노키아(핀란드),에릭 손(스웨덴)
  - CDMA 방식 : Qualcomm, Lucent Technology

☞ 현대식 통신망 구축에 **약 9억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 Warburg 예측치)
- 유선통신 복구 위한 **교환기 구매 단기간내 급증**예상 : **18개월내 2억불 투자계획**
- 국민기대 부응 위한 **무선통신 조기 추진**예상

○ 통신망 복구사업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 및 미 통신업계 반응

- 이라크 통신 인프라 복구 계약 **이라크 신 정부로 이양** 가능성

- 미행정부는 의회 승인 250억불 이라크 재건 지원안중 핵심분야인 **통신시설 복구에 관한 계약체결을 이라크 정부로 위임**키로 결정

- USAID(미국제개발처) Alfonso 대변인은 최근 **이라크 재건 관련 예산에 통신시설 복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
  - 미 통신업계들은 타 국가 업체들에 비해 계약 수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믿었던 미 통신기업들은 크게 실망

○ 목 표(법적·경제적 측면)

- 바그다드를 포함한 **이라크 도시 및 주요 물류 거점에 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후 이라크 통신망 재건 계획**

○ 정책방향 전망

- 독립 규제기관 확립(Independent Regulator)
-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절차
- 상호 연계망(Interconnection) 강화 및 표준화
- 가격규제
  - · 규제대상사업자가 현재 서비스 및 미래 투자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 보장
  - · 통신서비스 공급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공공성간 조화
- 통신 서비스 대상의 광역화 및 수혜층 확대
- 공정 경쟁 촉진 및 反독과점 행위 규제
  - · 시장실패에 적절한 대응, 독점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제한 등

○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 유선교환기 : 중장기 유지보수 수요 대비 초기 전략적 가격책정 필요
- 무선통신 : GSM, CDMA 방식 따른 메이저와 연대 필요

□ 인터넷

○ 많은 사업 기회가 예상됨
- 후세인 정부는 정권유지 저해 요인을 우려하여 보급을 제한해 왔음
  - · 연간 인터넷 가입비 : 55불
  - · 이라크기업의 인터넷 설치사용비용 연간 2,500~ 8,000불, 외국기업과 주재공관은 연간 3,000~12,000불을 지불

○ 컴퓨터 사용도 제한되어, 전체 인구의 15% 정도만이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됨

□ 기타 분야

○ 보건의료장비 수요 크게 확대 전망
○ 기타수요확대분야
- 석유화학, 비료, 시멘트, 종이, 소비재, 경공업, 섬유, 가죽, 신발, 음식가공, 포장

첨부 #5

## 5. 이라크 비즈니스 障碍要因(03.5.29현재)

◦ 미군정의 이라크통치로 미국 등 외국기업진출을 저해하는 이라크 **무역투자장벽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개정될 것임**
◦ 진출시 주요 장애요인은 헌법, 법률제도, 관행이 대표적인 것으로 현 상태는 과도기적 혼란상태에 있음

□ 투자 금지

○ 이라크헌법은 천연자원, 기본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를 금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
○ 법률은 이라크 기업에 대한 **非 아랍권 기업의 투자를 금지**

□ 합작 투자

○ 비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합작투자를 크게 제한하여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베이스에 한해 허용
- 이 경우도 이라크 파트너와 자본공유(capital sharing)방식은 금함

□ **상업 대리인** :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상업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절차가 관료적이고 기간이 많이 소요됨

□ 지적 재산권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 가입되어 상호간 특허권 및 상표권 보호 및 출원등록이 가능
○ 그러나, 저작권의 경우, 이라크와 동일한 국제조약 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

□ 아랍의 對이스라엘 보이코트 정책(Arab Boycott)

○ 이라크의 현행법은 철저히 아랍 보이코트를 준수
- 이라크법률은 이라크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라크정부가 작성한 8 포인트 질문서(eight-point questionnaire)에 답변하여 이스라엘내에서는 사업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라크 정부에 주는 경우에 한해 허용토록 강제

※ 미국법은 미국인이 이러한 질문서에 응답하는 것을 금지

□ 법의 집행(enforcement)

○ 이라크는 국내 상사분쟁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제도가 있으나, 비 아랍계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민사소송, 중재조정 절차를 인정하기 않고 있어, 법적 구제절차대상에서 제외됨

□ 수출입 승인

○ 역사적으로 이라크의 모든 수출 및 수입은 이라크정부의 승인이 필요
- 단,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ffairs)이나 美 정부 발주 계약은 면허 대상에서 제외

○ 역사적으로 모든 수출품과 수입품은 이라크 정부의 면허발급 대상이었음.

□ 치 안

○ 치안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시민과 시설에 대해서 테러공격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이라크내 다수 지역에서 무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치안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합국의 감독 하에 자치경찰세력이 급부상

○ 미 국무부는 업데이트된 여행 경보(travel warning)를 전세계적으로 발령하는 한편, 미 기업인들은 이라크 여행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라크 출장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

□ 보 험(미국기업의 경우)

○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라크 내 영업행위에 대해 부보하지 않은 상태임

○ 미국의 OPIC(해외민간투자공사)는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업자나 원청 및 하청사업자들을 정치적 위험과 재산몰수(expropriation)를 커버하는 보험 도입 검토중

○ 미국 수출입은행은 미국의 대이라크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검토중

□ 금융 인프라

○ 현재 이라크의 새로운 금융·은행제도가 미확정상태임
※ 새로운 화폐 도입이 논의 중에 있음

○ 이라크의 막대한 대외 채무조정문제가 국제적으로 미합의될 경우 해외차입에 의한 복구 프로젝트재원 조달에 차질 초래 전망

□ 기 타

○ 미국인은 국무부로부터 이라크방문 개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라크내에서 미국여권이 유효함

첨부 #6

## 6. 이라크 國家信用等級(Country Risk, 03.5.30)

- 자료원: 미국 민간경제연구소 Global Insight부설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 □ 종합 평가

○ 후세인정권축출에는 성공했지만, 이라크에 대한 미군주도하 군사개입이 지속되고 있고, 평화정착은 아직 요원한 상태임
- 비즈니스맨들의 이라크 출장은 당분간 관망 필요
- 향후 몇개월간 이러한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 전후 재건단계에서 일부기업들은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발적인 폭동 위험 또한 상존
- 도로건설, 통신망, 행정 및 기업 관리채널의 열악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

○ 재건 사업 계약을 수주한 외국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임시정부와 미-영 연합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엄격한 행동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 분야별 평가 요약

| 리스크 종류 | 정치 | 경제 | 법률 | 세금 | 운영 | 치안 | 종합 |
|---|---|---|---|---|---|---|---|
| 평점 | 5.00 | 4.75 | 4.75 | 5.00 | 5.00 | 4.75 | 4.88 (매우높음) |

주) 리스크는 1~5 구간, 5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상태

□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 5.0

○ 미군 주도 연합군의 승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압제적인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었지만 평화정착은 아직 요원함

- 각 정파 및 종파들이 이권확보와 영향력확대를 위해 이전투구상태

○ UN 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적·경제적 재건계획을 승인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

- 미국과 영국군이 이라크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한을 보유

- 전후재건계획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확보, 당초보다 UN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UN평화유지군의 도착으로 전후 붕괴된 법질서 회복이 빨라질 전망

- 마비된 지방 및 중앙정부 행정이 제자리를 찾는데도 기여할 전망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反 서방 항쟁이 고조될 가능성 증대

- 전반적인 석유수익 통제권이 미국 등 이라크 점령군에게로 이양되었고 이라크임시정부의 역할은 항구적인 정치체제가 창출되고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신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문기능만 수행

○ 사담후세인의 압제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된 데에 따른 힘의 공백으로 내전에 가까운 정치불안 리스크가 높음

- 새로운 정치시대에 제몫 찾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과 이합 집산으로 특히 3대 세력인 쿠르드족, 수니파 및 시아파간, 상이한 여러 부족과 종교집단간 정파간의 반목이 심함

## □ 경제적 리스크(Economic Risk)

○ 후세인 정권의 붕괴로 이라크 경제는 극적인 전환기 상태

- 미국 정부는 이라크 긴급 전후 복구사업에 일부 미국기업들에 한해서만 원청사업자로 선정
  - · 석유시설, 통신, 건강, 수자원, 전기 산업 등은 전후 특수 분야

- 재건 비용 규모는 1,000억불 이상으로 추산

○ 이라크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 국민 계정 (National Accounts)은 10년간 발표되지 않았음
- 그전에 발표된 것 또한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 직후 발표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

○ 1990년 UN 제재조치 이후 경제가 더욱 피폐해져 완전 회복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이라크 경제는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았음. 20년 전, 석유는 이라크 수출 收入의 90%, GDP의 62%를 차지하였고, 1989년에는 석유 수출액은 148억불에 달함

- UN의 제재조치가 취해진 이후(1996년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석유 수출 길이 막혀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그 피해 규모는 이제까지 UN제재조치로 손해를 본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큼

-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는 석유 수출로 인한 수익 중 일부가 인도적 차원의 민간 용품 구매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

- 석유수출대금으로 창출되는 모든 수입과 소득은 모두 UN 통제하에 관리되었고 경제는 고도로 중앙통제화됨

○ 2003년 5월 22일 UN안보리는 이라크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시키는 결의안 통과

## □ 법률상 리스크(Legal Risk)

○ 과거부터 이라크는 법률상 리스크가 매우 높은 수준인데 법개정이 임의적이고 법 지배원칙이 미 확립되어 후세인 권력이 사법부 및 법률제도에 우선함

- 전후복구사업에서 법제도의 재정비는 가장 우선적인 사안으로 전후 정치 틀을 구축계획에 포함됨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장기과제의 하나로 경제발전의 동인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법제도의 미비와 치안불안으로 투자 유치는 요원한 상태임

- 후세인 정권과 함께 기존 법 체제의 붕괴로 미군정은 민간인 폭동과 치안불안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 새로운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부족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

- 초기에는 부족법(Tribal Laws)이 후세인 정권 동조자들을 처단하려는 위협으로부터 이라크인들을 보호할 것임

- 이는 미군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통제권이 강화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

○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조속히 열릴 것으로 전망

## □ 조세 위험(Tax Risk)

○ 후세인 정권하에서의 조세 제도는 불투명하고 예측불가능

○ 징벌과세(Punitive Tax)는 1990년 UN제재조치 이후 현저한 석유 수익금 감소로 부과되었음

○ 석유금수조치가 해제 초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과세는 사항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IMF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가 이라크의 경제회생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과세 제도는 급속히 발달하게 될 전망

## □ 사업상 위험 (Operational Risk)

○ 전후에도 여전히 높은 사업상 위험

- 산발성 파벌싸움과 반미 운동

- 재건 사업 계약을 수주한 외국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임시정부와 미-영 연합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엄격한 행동 강령을 따를 것이 요구됨

○ 적어도 향후 일년간 이라크 내에 미군 주둔

- 영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WMRC(세계시장조사센터)는 미국이 적어도 일년간 이라크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운영위험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

○ 하급관료의 부패는 계속해서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임

○ 후세인 정권하에서의 기업운영상 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 UN제재 조치는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벗어난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금지

- 항공여행은 이러한 제재 조치 하에서 금지되었으나, 2000년 8월 개항된 이후 인도적 구호품을 실은 국제선이 바그다드에 쇄도

## □ 치안 위험 (Security Risk)

○ 금번의 이라크 전 이후 테러 위험이나 종족간의 불안 요소가 한층 심화된 상태

○ 가난으로 인한 범죄 급부상

- 전쟁으로 인해 정부의 식량 배급로가 차단된 이후 더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됨

첨부 #7

## 7. 이라크進出 체크포인트

- 자료원: 英 로펌 Norton Rose(03.4), 왕립국제문제연구소, EIU, Financial Times, 美 Heritage Foundation등 종합

### □ 과도한 외채로 국가 리스크가 높음

○ 이라크의 직접 채무는 $1,270억 추정(전쟁배상금, 미이행계약등 제외)되며, 상환기간 단기, 고금리인 상업차관비중이 높아 국가 리스크가 높음

- 석유의 원활한 증산, 국제사회의 이라크채무탕감・채무이행 리스케줄링 규모,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액 등이 관건

※ IMF기준 과도외채빈곤국가가 관리가능수준의 年 debt service (대외채무상환액)/export(수출액)의 최대상한선 15~20%이나 이라크는 훨씬 초과

### □ 낙후된 인프라 및 기업지원서비스 수준 사전 고려

○ 도로, 항만, 공항, 통신, 발전 등 핵심기업인프라가 노후되거나 상당수 파괴(최근 20년간 3차례에 걸친 전쟁, 비 전쟁기간중 공습 피해)

○ 제조산업기반 취약, 민간부문의 미 발달(공공부문비중 80%)로 기업지원 서비스가 낙후

- 공산품 원부자재 및 부품 소재산업이 거의 없어 외부 소싱이 불가피
- 공업부 산하 60여개 국영제조업체가 있으나 공장가동률이 20~30%에 불과

□ 테러위협 및 기후변화가 심함

○ 이슬람 시아파(인구 63%)와 수니파(인구 34%), 종족상 아랍계(75~80%), 쿠르드(15~20%), 기타 5%로 구성되어 종교적 대립, 소수민족문제, 토후들의 영향력 막강하며, 개인총기 소지율이 높음

- 테러공격 또는 현지 폭동, 기후변동으로 인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대비

- 종족간 갈등 재연가능성

□ 시장 리스크가 높은 만큼 이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험내용을 철저히 숙지

○ 계약조건, 보험, 고용부문(인종차별 문제)에 현지관행과 맹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를 사전에 반영

- 계약이 깨지거나, 항만시설 또는 공급부족으로 원자재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했을 때, 기업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 실제 이라크는 고도 위험지역으로 간주되어 보험을 들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부보되더라도 비용이 매우 클 수 있음

○ 보험 내용, 특히 불가항력조항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테러 보호조항도 충분히 고려

- 불가항력 면제 조항도 보통 계약인이 사전에 통지했을 경우에만 유효한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때도 있음.

□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수출에 의존하나 생산설비노후와 이라크내 석유민족주의와 과다한 정치적 리스크로 단기간내 급속한 석유증산은 기대난이고 1인당 구매력 증가도 제한적

○ 세계 2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부족과 UN경제 제재로 생산시설이 노후화, 러시아, 프랑스 석유메이저들의 기득권 보호 문제가 국제법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음

- 영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 전망

  · 석유민족주의와 과도한 정치 리스크로 석유메이저들은 향후 5년(정통성있는 정권이 탄생, 자생력을 갖기까지 소요기간)이내에는 대규모 장기 투자를 꺼리고 주로 단기 서비스계약위주로 점진적 진출 전망

  ※ Exxon Mobile, ChevronTexaco, Conoco Phillips 등 미국계 석유 메이저와 RD Shell, BP, Total Fina Elf 등 유럽계 석유 메이저들이 치열한 경합전망

○ 이라크경제에서 석유비중은 GDP의 60%이상이며 외화가득원의 95%를 점유하나 단기간내 탈석유화가 거의 불가능

- 이라크 베이비붐(인구증가율도 연 2.7%), UN의 원유생산량 제한 등으로 인구 1인당 원유 收入은 1980년 $ 6,000에서 2002년에는 $ 700으로 급락함

○ 신 정부는 석유증산에 최우선을 두어 OPEC과 대립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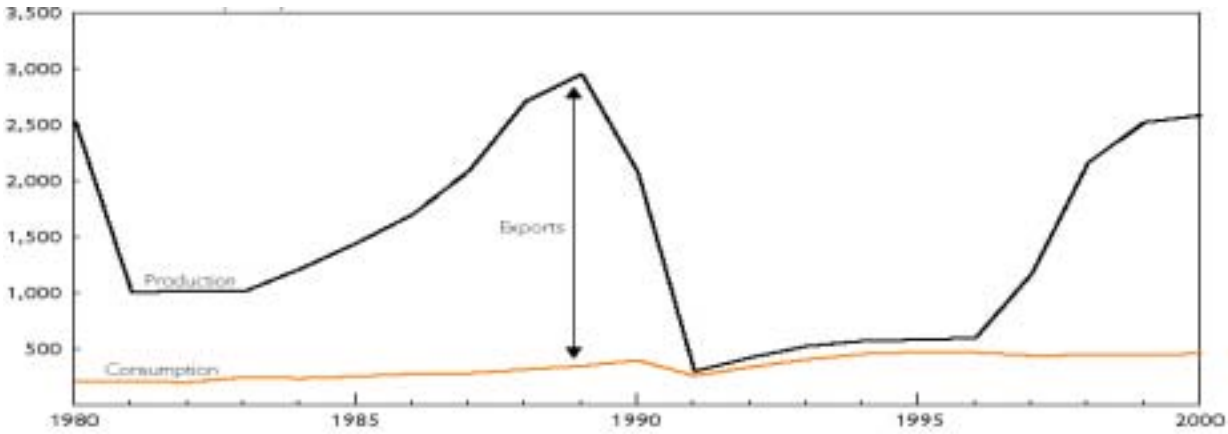
- 기존 유전 재건을 통해 종전후 2-3년동안 원유생산능력을 현재의 하루 230만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확대하고 5년내에 600만 배럴까지 증산 전망

  ※ 새로운 유전개발의 적극 추진을 통해 종전후 8년이내에 하루 생산량을 600만 배럴까지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나 실현되기 어려움

→ 이라크 원유 생산량이 일일 600만 배럴이 될 경우, 지나친 증산으로 OPEC내 갈등이 증폭되고, 미국, 러시아 등의 석유생산업체들의 반발 직면 전망

이라크원유생산 및 자국내 소비량 추이(1980-2000)

(단위 : 일일 천 배럴)




□ 참고: 러시아의 대이라크이권

○ 후세인정권시 대이라크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석유 및 가스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 대이라크 채권과 석유개발권 등을 포함 총 $ 500억이상 규모 이권 보유

  · 구 소련시절 무기판매대금 채권 $ 70~80억(현재가치 $100~120억), 채굴기간 20년이상이 보장된 유전개발권 $ 300억

  · UN의 oil for food 프로그램하에 이라크에 연간 $ 15억 규모 수출

- 1981-2001년 이라크 무기수입액의 절반을 점유

- 이라크-러시아 경제협력협정상 잠재 이권
  · 석유·가스 부문 15개 개발 제안서 포함, 총 67개의 프로젝트 약 $ 400억 추정

○ 다만, UN제재조치로 석유 및 가스생산이 제대로 이행된 경우가 많지 않음

## 러시아 Lukoil사의 이라크 유전개발 분쟁사례

- 러시아의 국제 석유 메이저인 Lukoil은 60억불(51억 유로, 23억 파운드) 규모의 이라크 West Qurna 유전 재건 프로젝트(매장량 150억 배럴, 계약기간 23년)를 1997년 수주하였지만 UN의 대이라크 제재조치 지속으로 계약이행(석유생산부분)되지 않자 이라크는 2002년말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 러시아측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서에 의거 스위스 제네바국제법정에 소송제기, 법정해결까지 6-8년 소요 전망, 필요시 국제중재를 요청할 계획임

- Lukoil측은 동 계약이 계속 유효하며 전후복구사업에 이러한 러시아 기득권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대응조치 강구

  - 투자 손실분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라크 석유 수출분에 대한 가압류 판정을 스위스 법원에 청구할 계획

- Lukoil측은 사담 후세인 정권당시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West Qurna 유전개발 사업을 재개키로 결정

- 러시아 외무부는 미군의 바그다드공세로 단절된 외교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중

- 미국은 러시아기업들의 이라크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천명

※ Lukoil사는 중동구 및 CIS지역내 최대 기업(해외자산규모기준)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주종 생산, 2000년 기준 총매출 $144억(해외매출 $ 78억), 해외 자산 $ 42억, 종업원 13만명(이중 해외 2만명)

첨부 # 8

## 8. 美벡텔사 이라크 再建事業 推進方向

### □ 수주 개요

○ 총 6억 8천만불을 03.4.17일 미 국제개발처로부터 수주, 이중 현재까지 147백만불을 계약

- 미국정부는 2004년까지 상기 발주액을 모두 계약할 예정임
  ※ '03. 8월까지 $6억8천만의 대부분이 하청될 것임

- 벡텔사는 수주액중 90%정도를 하청을 줄 계획임

○ 수주 범위

- 발전설비, 전력 그리드(electrical grid), 도시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평가 및 복구
- 공항, Umm Qasr항구 복구
- 병원, 학교, 일부 정부청사건물, 주요 관개시설 재건
- 수송연계망 복구

○ 하청계약 및 기자재 구매방향(벡텔사 수석부사장 Cliff Mumm, 6.2)

- 가급적 이라크 경제회복 및 산업기반확충을 위해 활용

- 외국사들은 이라크내에서 조달이 되지 않은 장비나 기자재, 또는 최고수준의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링서비스분야에 한해 참여기회 부여

  · 엔지니어링 공사, 일반 계약공사 모두 최고 90%까지 이라크기업에 하청을 줄 전망

※ Al-Bunnia Trading Co(바그다드소재 93년 역사)가 최초로 하청 받은 이라크기업임

· 이라크기업들은 특히 터키나 동구권 파트너들과 합작하여 하청계약을 수주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주가능성이 높음

□ Cliff Mumm 재건사업 팀장 발표요지(5.21, 워싱톤설명회)

○ Bechtel사가 USAID로부터 받은 임무는 전후 이라크 내에서의 인프라 및 공공시설을 재건하고 기초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

○ 이라크 재건사업은 이라크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북부지역(쿠르드족 거주지 포함, Bechtel사 현지팀 소재지)
- 중부지역(바그다드 포함)
- 내륙 중심지역(Heartland)
- 남부지역(Basra 및 UmmQasr 항구 포함)

○ 하청업체에 대한 요구조건

- 치안 및 자급자족(self-sufficiency)

· 하청사는 자신들의 안전과 식량, 주거, 식수, 통신 및 의료 등에 대해 직접 자기책임하에 자급자족하여야 하며 이를 벡텔사에 호소해야함

· Bechtel사나 미군이 하청회사 직원들이나 하청자체에 대한 치안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임

· 실제 전쟁으로 이라크가 파괴된 것보다 오히려 약탈과 태만(neglect)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음

※ 바그다드는 현재는 일하기에 어렵고 위험한 환경이어서 이라크에 들어가기 전에 Bechtel사는 많은 자원을 쿠웨이트시에서 모집하고 있는(mobilize)상황임

- 이라크기업들과 원활한 협력체제를 갖춘 기업들을 우대할 것임

○ 사업의 범위 및 내역

- 기본적으로 재건(rebuild)이며, 신규건설은 아님
- 심해하구 준비(deep water port), 전력, 상・하수도, 공항, 건물 복구(병원과 학교), 도로 및 교량 복구에 우선 순위 설정
- 전국적으로(national program) 도로, 교량, 항구(Umm Qasr), 및 공항(바그다드 및 바스라)의 긴급 복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regional programs) 수질개선 및 상수배급 등 각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사업 우선 순위 설정

○ 하청 방향

- 다른 기업들도 금번 기회가 이라크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를 희망
- 사업의 90%가 하청 될 것이며 이라크사를 우선 고려
-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대부분은 긴급사업의 성격임
- 대부분이 사업이 $100만 이하의 규모일 것이며, $3천만의 계약이면 상당히 큰 규모의 하청사업이 될 것임

○ 현재까지 사업 진전 상황

- 향후 이라크 재건사업 및 인도적 지원은 이라크내 항구를 통해 물자조달이 용이하게 되어야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바, Bechtel사는 Umn Qasr 항구의 준설 및 기능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 오고있음
- 또한 Mosul 지역에서 교량 복구에도 주요 우선 순위에 두고있음

○ 이라크 전략사업 지원

- Bechtel사는 이라크 전역에 걸쳐 전력 배전망을 재건하려는 노력을 지원중
- 이라크인들은 동 사업 완수에 필요한 기술과 노동력 거의 모두를 갖춤
- 동 사업의 1~2% 정도만 외국인들이 지원하면 될 것으로 봄

□ Tom Elkins 구매담당 책임자 발표 요지(5.21, 워싱톤 설명회)

○ 하청 현황

- 현재까지 4개국(미, 영, 쿠웨이트, 사우디)의 9개회사와 14개의 하청계약을 맺음

○ 하청참가 자격

- 경험, 재정능력과 공사수행 능력을 보유하고있는 전세계의 자격 있는 어떤 회사도 참여가 가능함(미 정부가 테러지정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기업은 제외)
- Website를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telkins @bechtel.com으로 하기 바람.

○ 하청 선정절차

- Bechtel사 Website를 통해 등록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임
- Bechtel사는 6천 회사 이상이 하청사업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Bechtel Website에 등록시 등록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필요시 등록자료를 수정할 수도 있음
- 하청업체등록은 벡텔사 포탈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 반드시 등록해야 함

- http://www.bechtel.com/
- http://supplier.bechtel.com/
- http://contractor.bechtel.com/

※ 시공경력, 재정상태, 현재의 시공 능력, 안전문제 해결방안, 연락처 등을 등록

- 하청에 관심이 있는 회사가 등록을 완료한 후 1차적으로 1,000개의 회사를 우선 선정할 것임

  - 각 입찰(tender) 마다 6-10개 정도의 회사만 남게될 것임.

  - 입찰탈락사에 대해서는 통보가 갈 것이나 공식적으로 설명회(debriefing)를 갖지 않을 것임

  - 입찰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것인바, 입찰 참여사는 1차 입찰액이 자신들의 최선의 입찰액(best offer)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
|---|
| ☞ USAID로부터 수주한 뒤 5.19일 현재까지 86,759명이 벡텔사포탈 사이트 방문<br>- 72개국 4,348개사가 등록 (미국 2,826개사, 영국 326개사, 터키 122개사, 이태리 80개사, 인도 78개사, 호주 77개사, 스페인 72개사, 캐나다 68개사, 폴란드 54개사, 기타 645개사) |

  - 벡텔사는 하청업체의 기초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D&B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D&B가 부여하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가 필요

- 벡텔사의 하청업체선정 절차

① 잠재적 입찰대상업체 평가(Qualification of Potentional Bidders)
② 입찰 참가 대상업체 선정 (Bidder Selection)
③ 입찰제안서 요청 및 접수(Solicitation)
④ 평가 (Evaluation)
⑤ 하청업체 선정(Award)

- 하청업체는 입찰서류 (안전, 시공능력, 스케쥴, 가격 포함)를 심사하여 최종 선정
· discussion 없이 하청업체 선정
· 추가적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만 discussion이 있을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결과 통보

- 입찰신청 마감은 portal site에 공지후 대부분 7 calender days 안에 끝남

○ 보험

-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

· 제3자 책임보험(third-party liability insurance), 자동차 책임보험(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1차 당사자 재산보험(first-party property insurance) 등
※ 이라크 리스크를 감안시 보험가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임

- 부상자 후송보험(medevac insurance) 가입도 필요할 것임

- USAID 지침에 따라 이라크 및 인근국 근로자에 대한 Defence Base Act Workers' Compensation 및 부상자 수송보험 medevac insurance)보험에 가입해야 함

○ 관련 미 정부 규정 및 준수

- 계약은 미국정부의 조달 관련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내 및 관련 국제법에 따를 것임.
- 하청관련 미 정부의 관련 규정은 모두 준수되어야 함.
- 상기규정에 익숙지 못할 경우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FAR) 및 USAID 부속규정 (AIDAR) 참조 요망

○ 수출 통제

- 벡텔사 등을 포함한 미국정부발주 모든 이라크 재건사업계약은 미국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해야 함
- 벡텔사는 모든 하청업체에게 미국 수출통제분류번호(U.S.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s;ECCNs)를 부여할 예정임

○ 입찰이행보증

- Bid Securities : 입찰 신청시 제안가격의 10%를 보증수표 형태로 제출
- Performance Securities : 하청금액의 10%를 무조건/취소불능 은행 보증서의 형태로 제출
- 공사후 최종 확인시까지 : 공사후 보증기간 완료시까지는 은행 보증금액을 5%로 낮출 수 있음

○ 기 타

- 프랑스 등 반전국에게도 기회는 주어짐
- 비자 등 행정편의를 벡텔사가 지원해 주지 않음
- 모든 입찰 및 구매정보는 web site를 통해 공지됨
- 통신부분은 이번 인프라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 Bechtel사의 사업은 기존 인프라의 재건임
- 최종 선정기준은 안전성(safety), 질(quality), 가격(price) 및 계약일정준수(delivery/schedule)가 될 것임

# 벡텔사 하청계약수주업체 리스트

| 업체명 | 웹사이트 | 본사소재지 | 하청계약 분야 |
|---|---|---|---|
| Great Lakes Dredge&Dock Co. | www.gldd.com | Chicago, Illinois, United States | Initial Emergency Dredging of Umm Qasr Port |
| Great Lakes Dredge&Dock Co. | www.gldd.com | Chicago, Illinois, United States | Marine Survey of Abandoned Dredges at Umm Qasr Port |
| Great Lakes Dredge&Dock Co. | www.gldd.com | Chicago, Illinois, United States | Bathymetric Survey |
| Olive Security | www.olivesecurity.com | London, England, United Kingdom | Temporary Security Services (3 separate subcontracts) |
| ArmorGroup Services (Jersey)LTD. | www.armorgroup.com | Jersey Islands/ Channel Islands (World HQ: Jacksonville,FL) | Temporary Services Re: Unexploded Ordnance |
| Al-Bahar&Bardawil Specialities W.I.I | www.bahar-bardawil.com | Safat, Kuwait | Pioneer Camp at Basra |
| Halcrow Group Ltd | www.halcrow.com | London, United Kingdom | Minor Civil Engineering Support |
| Titan Maritime, Ltd | www.titansalvage.com | Ft. Lauderdale, Florida, United States | Marine Survey of Wrecks at Umm Qasr Port |
| Verestar, Inc. | www.verestar.com | Fairfax, Virginia, United States | Initial 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
| National Catering Co. | | Saudi Arabia | Pioneer Camp at Umm Qasr Port |
| Tamimi Global Company Ltd., TAFGA | www.altamimi.com | Saudi Arabia (thru is Kuwait Office) | Pioneer Camp in Baghdad |
| Al-Bunnia Trading Company | | Baghdad, Iraq | Construction of Al Mat Bridge Bypass |